

# **2018년 4학년 움직이는 학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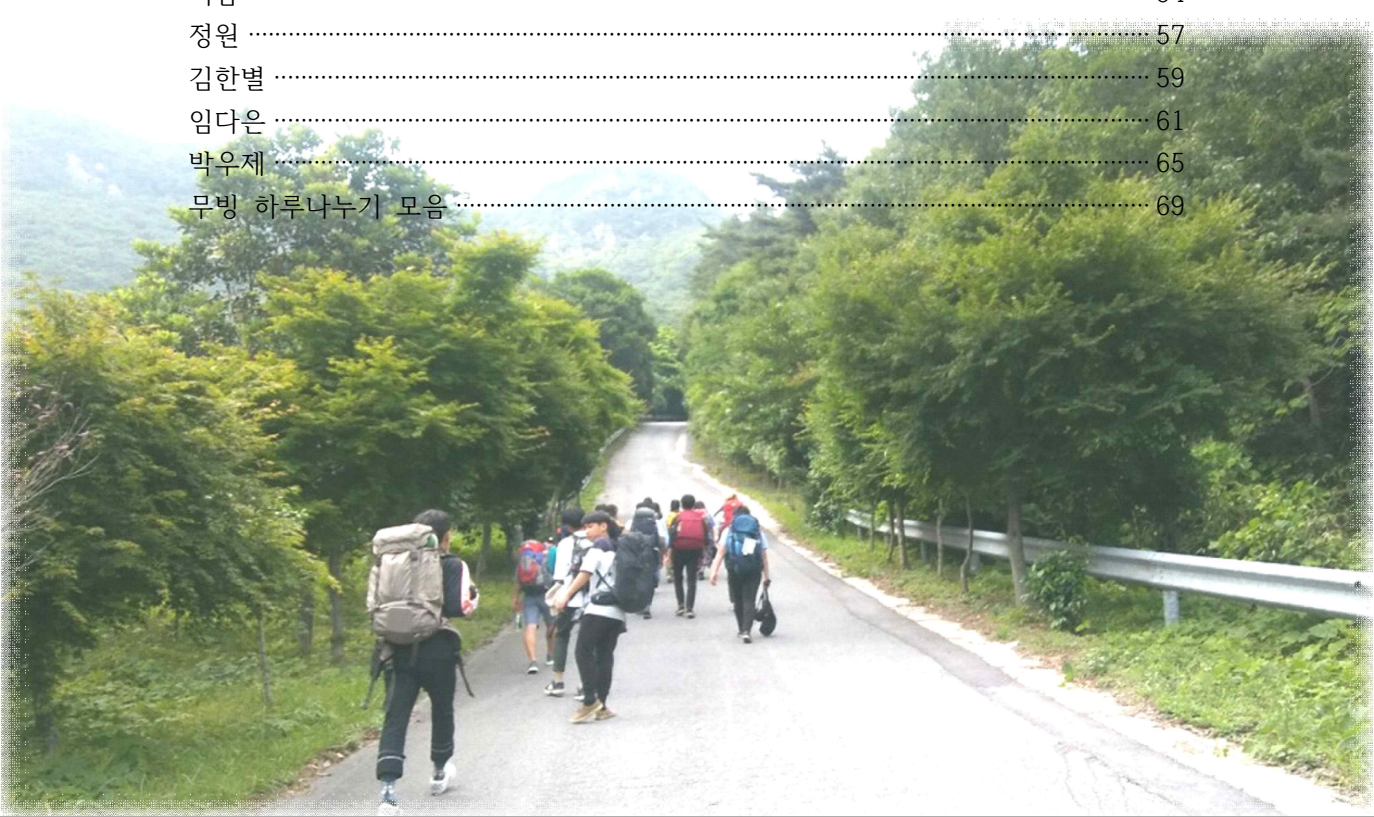
**06/4 ~ 06/20**

**15학번 방가반가반 +  
양정호 김수진 박후조**

**제천간디학교**

# 목차

결과보고서 보기 전에 .....	3
2018년 4학년 움직이는 학교 개요 .....	4
움직이는 학교 준비과정 .....	14
서명주 .....	18
강연우 .....	23
한강 .....	25
오우진 .....	28
권태운 .....	31
김재하 .....	33
윤수민 .....	35
조연지 .....	38
홍수정 .....	40
이태훈 .....	43
하정민 .....	46
김마루 .....	49
김담 .....	51
이봄 .....	54
정원 .....	57
김한별 .....	59
임다은 .....	61
박우제 .....	65
무빙 하루나누기 모음 .....	69



# 결과보고서 보기 전에

교육과정은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4학년 무빙 또한 개편되었습니다. 해외이동학습이 한 학년 위로 올라가 사라진 자리, 거기에 새로이 추가된 우리가 처음(?) 해보는 바로 자유 여행이 그것입니다.

이번 ‘방가방가’ 반의 무빙 주제는 ‘사랑과 자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성에 부제목은 ‘남도여행이면서 공정여행이면서 짠내투어와 알쓸신잡을 합친 여행을 목표로 두는 아주 아주 재미있거나 혹은 그 반대인 그런 여행’입니다. (제가 지었죠.)

‘사랑으로 소록도에서 봉사’했고 ‘자발성으로 직접 가이드가 되어 남도여행’을 했죠. 누구하나 크게 다치는 일 없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간디학교 평생 없을 법한 아주~ 여유로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결과 보고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도여행’ 보고서를 제일 늦게 낸 사람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바로 저 박우제 본인이지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을 결정할 때 “1페이지를 꼭 넘길 것(엔터 조작 안 포함)”이라고 정했지만 한 페이지를 안 쓴 친구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분노)

어쨌든 지금 보고 게시는 결과보고서 소감문에 순서는 무빙 보고서를 먼저 낸 사람부터입니다. (먼저 보고서에 등장한 친구는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보시겠죠?) 그리고 일정은 저의 기억으로만 재구성되어있음을 알립니다. 원래 계획된 것과 진행할 때 차이가 있던 것이 많으므로 그냥 하나하나 기억을 되돌리고, 사진 정보에 들어가서(찍은 시간이 나옵니다.) 확인했지만 틀릴 수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우리 반 친구들의 문법을 존중합니다. 아주 훌륭하죠! 제가 화나서 고친 것 빼고는 정말 손 안 썼으니 알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맞춤법은 대부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서 편집을 맡은 박우제의 이모저모였습니다. 수고하십쇼.

# 2018년 4학년 움직이는 학교 개요

참가 : 방가반가반 학생 18명, 교사 양정호, 김수진, 박후조(소록도) 총 21명

- ▷ 6월 4일 월 오후 13:00 국립소록도병원 집결
- ▷ 6월 4일 월 ~ 6월 9일 토 소록도 봉사활동
- ▷ 6월 9일 토 ~ 6월 20일 수 남도 여행 일정 시작
- ▷ 6월 20일 수 오후 12:00 각자 집으로

날짜	주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식사 구분
		오전	오후	저녁		
6/4 (월)	사랑	집에서 출발	13:00 국립소록도 병원집합 OT(자원봉사 활동 소개 및 준수사항 전달) 봉사활동	무빙이 끝난 나에게 편지 쓰기	자원봉사센터	병동 식당 식사
6/5 (화)		4:50~5:00 기상 및 이동 05:00~06:00 식사수발(병동) 06:30~07:30 아침식사 07:30~09:00 휴식 09:00~12:00 봉사활동(병동)		한센인 어르신들의 강의		
6/6 (수)		12:00~13:00 점심식사 13:00~17:00 봉사활동(병동) 17:00~18:00 저녁식사 18:30~21:00 프로그램활동		만령당, 자혜의원 섬 한바퀴 걷기		
6/7 (목)		어르신 이야기 21:00~22:00 자유 시간 22:00~ 취침		소록도 마무리		
6/8 (금)		봉사활동	신성교회 이동 소록도 박물관 중앙공원	휴식		

날짜	주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식사 구분
		오전	오후	저녁		
6/9 (토)	섬에서 섬으로	신성교회에서 특송 부르기, 청산도로 이동(배-버스-배)	청산도 도착	영화 서편제	청산도 민박집	편의점
						백반
						볶음밥
6/10 (일)	정오를 피해라	아점	슬로길 11, 1, 2코스	휴식		김치볶음밥
6/11 (월)	정오를 피해라	조별로 청산도 슬로길 미션수행 - 슬로길 걷고 풋말 찍기 - 밥 먹는 사진 찍기 - 현지인과 포즈 사진 찍기 청산도 조 - 트와이스 꽃받침 강진 조 -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순천 조 - 인간 피라미드		휴식		매운탕
					도시락	
					부대찌개	
					회, 전복, 해삼, 멍게	
6/12 (화)	섬에서 섬으로	숙소퇴소, 완도로 이동(배)	완도시장, 완도 타워	완도네시아 강의	완도 네시아	전복죽
						시장에서 조별로
						보리밥정식
6/13 (수)	템플 스테이	숙소퇴소, 강진으로 이동(버스)	절 프로그램	절 프로그램	백련사	베이글
						백반
						절밥
6/14 (목)	바다 내음	절 프로그램, 숙소퇴소	하저어촌마을 이동 바지락 캐기 체험	잡은 바지락 으로 바지락 탕 끓여먹기	하저어촌 마을	절밥
						시내에서 조별로
						라면 바지락 탕
6/15 (금)	바다 풍당	숙소퇴소, 보성이동(버스)	바다	휴식	플 하우스 펜션	콘프로스트
						녹차 떡갈비
						부대찌개

날짜	주제	시간별 프로그램			숙소	식사 구분
		오전	오후	저녁		
6/16 (토)	바다 풍덩	바다	바다, 공동체 놀이	불꽃놀이		식빵 도시락 떡볶이
6/17 (일)	이왕 이렇게 된 거	숙소퇴소, 보성(벌교) 이동(기차)	숙소이동(버스), 낙안읍성	영화 태백산맥	플벨리 펜션	간장밥 짜장면 꼬막정식
6/18 (월)	이런 어리 바리 깁네	숙소퇴소, 순천이동(기차)	순천 기적의 도서관 탐방	월드컵 보며 치킨	정원 앞 게스트하우 스	샌드위치 김밥 시리얼 치킨
6/19 (화)	눈을 즐기자	순천만 국가 정원	청춘창고 유익한 상점 청춘 옷장	여행 마무리	정원 앞 게스트하우 스	카레 청춘창고 조별로 무한리필 고기
6/20 (수)	영양 끝났어	숙소퇴소, 순천만 습지	집으로			카레

□ 세부 일정

6월 4일

- 13:00 국립소록도 병원집합
- 13:30 OT(방 배정, 자원봉사 활동 소개 및 준수사항 전달)
- 14:00~17:00 봉사활동
- 17:00 저녁식사 (병원 식당)
- 18:30~21:00 프로그램 활동 (하루나누기, 무빙이 끝난 나에게 편지 쓰기)
- 21:00~22:00 자유 시간
- 22:00~ 취침



첫 날 / 오리엔테이션 후

6월 5일

04:50 기상 및 봉사활동지 이동

05:00~06:00 식사수발(병동)

06:30 아침식사(병원 식당)

07:30~09:00 휴 식

09:00~12:00 어르신께 봉사활동(병동)

12:00 점심식사(병원 식당)

13:00~17:00 어르신께 봉사활동(병동)

17:00 저녁식사(병원 식당)

18:00~19:00 프로그램 활동 (한센병 어르신의 이야기, 하루 나누기)

21:00~22:00 자유 시간

22:00~ 취침

6월 6일

04:50 기상 및 봉사활동지 이동

05:00~06:00 식사수발(병동)

06:30 아침식사(병원 식당)

07:30~09:00 휴 식

09:00~12:00 어르신께 봉사활동(병동)

12:00 점심식사(병원 식당)

13:00~17:00 어르신께 봉사활동(병동)

17:00 저녁식사(병원 식당)

18:00~21:00 프로그램 활동(만령당, 자혜의원, 소록도 둘러보기, 하루나누기)

\*정원생일

21:00~22:00 자유 시간

22:00~ 취침

6월 7일

04:50 기상 및 봉사활동지 이동

05:00~06:00 식사수발(병동)

06:30 아침식사(병원 식당)

07:30~09:00 휴 식

09:00~12:00 어르신께 봉사활동(병동)

12:00 점심식사(병원 식당)

13:00~17:00 어르신께 봉사활동(병동)

17:00 저녁식사(병원 식당)  
18:00~21:00 프로그램 활동(하루나누기, 소록도 마무리)  
21:00~22:00 자유 시간  
22:00~ 취침

6월 8일

04:50 기상 및 봉사활동지 이동  
05:00~06:00 식사수발(병동)  
06:30 아침식사(병원 식당)  
07:30~09:00 휴 식 / 중앙공원 둘러보기  
09:00~12:00 어르신께 봉사활동(병동)  
12:00 점심식사(병원 식당)  
13:00 신성교회로 이동 및 짐 풀기  
14:00~16:00 국립 소록도 박물관 둘러보기  
16:00 녹동 터미널 근처 이동  
17:30 저녁식사 녹동 식당(버섯전골, 냉면)  
20:00 하루나누기(소록도 봉사활동 평가)  
21:00 휴식  
22:00 취침

6월 9일

03:30 기상  
04:00~05:00 신성교회 새벽 예배 (특송 :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05:00 신성교회 차로 이동 녹동항 이동  
05:00 간식 (편의점)  
06:00 배타고 신지도 선착장으로 이동  
\*배에서 일출 봄  
08:30 약산도 도착  
09:00 약산도 선착장에서 완도항까지 버스로 이동  
10:30 완도에서 장보기, 아침(빵) (청산도 조)  
11:30 완도에서 배타고 청산도로 이동  
12:20 점심식사(섬마을 식당에서 백반)  
13:00 신성교회로 이동 및 짐풀기  
14:00~16:00 소록도 중앙 공원, 국립 소록도 박물관 둘러보기  
13:30 짐 풀기 및 휴식



14:30 마을 인사 (청산도 조)  
17:30 저녁식사 (볶음밥)  
18:00 하루나누기  
19:30 영화 '서편제' 시청  
23:00 취침

6월 10일

10:00 기상  
11:00 아침식사 (볶음밥)  
12:30~15:00 청산도 슬로길 11코스, 1코스, 2코스 걷기  
17:30 저녁식사 (김치볶음밥)  
20:00 하루나누기  
21:00 휴식  
23:00 취침

6월 11일

08:00 기상  
08:30 아침식사 (매운탕)  
09:45~16:00 청산도 슬로길 걷기 및 미션 수행  
\*미션구역을 걸치는 슬로길 걷고 풋말 찍기  
\*밥 먹는 사진 찍기  
\*현지인과 포즈 사진 찍기  
청산도, 완도 조 -트와이스 꽃받침  
강진, 보성 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순천 조 -인간 피라미드  
\*점심식사 (도시락)  
18:00 저녁식사 (부대찌개)  
19:00 간식인 듯. (전복, 성게, 멍게, 해삼, 회 먹기)  
21:00 하루나누기  
23:00 취침

6월 12일

07:30 기상  
08:00 아침식사(전복죽)  
08:40 숙소 퇴소

10:00 완도로 출발  
 10:50 완도네시아에 짐 놓기  
 11:00 완도 중앙시장으로 이동  
 11:30 조별로 밥 먹고 완도타워로 이동  
 14:00 완도타워 도착 후 구경  
 14:40 완도타워에서 공동체놀이(경찰과 도둑)  
 15:30 숙소에서 휴식  
 18:00 저녁식사 (숙소 근처 식당에서 보리밥)  
 19:00 완도네시아 김영아 사장님 강의  
 20:00 하루나누기 및 청산도 여행평가  
 23:00 취침

6월 13일

08:30 기상  
 09:00 아침식사(완도네시아에서 조식/ 베이글)  
 09:40 숙소 퇴소  
 10:00 강진으로 출발  
 12:00 강진 도착  
 12:10 점심 식사(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백반)  
 12:30 자유시간  
 14:10 백련사로 버스타고 이동  
 15:00 백련사 도착, 템플스테이 오리엔테이션(방사 배정, 자기소개, 사찰예절)  
 15:30~17:00 예불  
 17:30 저녁 공양 (절밥)  
 18:00 타종체험  
 18:30 가우도로 도 닦으러 가기(명상)  
 20:00 하루나누기  
 21:00 취침

6월 14일

05:00 기상  
 05:30 새벽예불  
 06:00 자유행선  
 07:30 아침공양(절 밥)  
 08:00 휴식



11:00 회향 다시 강진 버스터미널로 감  
12:00 조끼리 자유롭게 밥 먹기  
14:00 하저 어촌체험 마을(숙소) 이동  
16:00 바지락 캐기 체험  
19:00 저녁식사 (라면, 바지락 탕)  
20:00 자유시간  
23:00 취침

6월 15일

08:30 기상  
08:30 아침식사 (콘프로스트)  
09:00 퇴소준비  
10:15 강진 버스터미널까지 버스로 이동  
11:35 보성시외버스터미널로 버스타고 이동  
12:20 점심식사 (특미관 녹차 떡갈비)  
14:30 울포해변 숙소로 버스타고 이동  
14:00 하저 어촌체험 마을(숙소) 이동  
15:30 바다에서 물놀이  
18:00 숙소에서 씻기  
19:00 저녁식사 (부대찌개)  
20:00 하루나누기  
21:00 자유시간  
23:00 취침

6월 16일

08:30 기상  
09:00 아침식사 (식빵)  
11:00 다시 바다에서 물놀이  
15:00 공동체놀이  
16:00 온천가서 씻기  
19:00 저녁식사 (떡볶이)  
20:00 하루나누기  
21:00 해변에서 불꽃놀이  
23:00 취침

6월 17일

08:30 기상

09:00 아침식사 (간장밥)

09:30 퇴소준비

10:00 보성역으로 버스타고 이동

11:52 별교역으로 기차타고 이동

12:30 숙소까지 버스타고 이동

14:00 점심식사(짜장면)

15:00 낙안읍성으로 이동

16:00 공동체놀이

17:00 전통놀이

18:00 저녁식사 (꼬막정식)

18:30 순천 조 장보기

19:00 숙소 이동

20:00 하루나누기

21:00 영화 '태백산맥' 시청

\*오우진 위염으로 응급실감

24:00 취침

6월 18일

08:30 기상

09:00 아침식사 (샌드위치)

09:30 퇴소준비

10:00 보성여관까지 버스타고 이동.

11:00 보성여관 휴관일임으로 일정 취소.

12:25 순천역으로 기차타고 이동

14:00 기적의 도서관 탐방

15:00 숙소로 시내버스타고 이동

16:00 순천 조 장보기

18:00 저녁식사 (콘프로스트)

20:00 하루나누기

21:00 치킨 먹으며 월드컵 "한국vs스웨덴" 관람

24:00 취침

6월 19일

08:00 기상

08:30 아침식사 (카레)

10:00 순천만 국가 정원 관람

12:30 청춘창고

14:00 유익한 상점 사장님 강의

15:30 옷장 & 청춘옷장

16:30 숙소 이동

17:00 하루나누기 및 무빙 총 종리

19:00 무한리필 고기집 가서 고기 털어버렸다.

21:00 휴식

24:00 취침

6월 20일

08:00 기상

08:00 아침식사 (카레)

09:00 퇴소준비

09:30 순천만 습지로 버스타고 이동

\*마루는 일정상 홀로 버스타고 집에 감

10:30 순천만 습지 둘러보기

11:30 순천역으로 버스타고 이동

12:00 각자 집으로 기차타고



마지막 날 / 순천역

# 움직이는 학교 준비과정

## 1. 4학년 '움직이는 학교' 준비 일정

	모임
4월 3번째 주	*4학년 무빙 기획 공유 *갈 만한 남도 여행지 찾기
4월 4번째 주	*소록도에 대한 강의(후조쌤) *〈당신들의 천국〉 필독하기
5월 1주번째 주	무빙 성교육
5월 2번째 주	*무빙 기획회의를 위해 가정학습 하루 일찍 학교 도착. *끝장기획회의
5월 3번째 주	무빙 점검 및 규칙 만들기
5월 4번째 주	*무빙 총 점검
움직이는 학교	
6월 3주	각자 집에서 '움직이는 학교' 보고서 작성(개인 보고서)
	결과 자료집 준비 → 결과 자료집 제작

## 2. 남도 여행 모듬

- ▷ 청산도 & 완도 팀 6월 9일 ~ 6월 12일
- ▷ 강진 & 보성 팀 6월 13일 ~ 6월 16일
- ▷ 보성 & 순천 팀 6월 17일 ~ 6월 20일

### 3. 도움 받은 분들과 장소

구분	관련 단체	설명
봉사활동	국립 소록도 병원 자원봉사센터	한센병 전문 치료기관 자원 봉사활동 문의: 061-840-0583
숙소	풀벨리 펜션	낙안읍성까지 걸어서 30분 계곡이 있어 한여름에 적합한 숙소
	완도네시아 게스트하우스	완도 유일의 게스트하우스. 사회적 기업으로 사장님의 지역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배울 수 있는 곳. 카페 및 핸드메이드 공방을 함께 운 영하며, 아이스티가 맛있음. <a href="https://wandonesia.com">https://wandonesia.com</a>
	정원 앞 게스트하우스	순천만 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 신도시 지구에 있는 숙박시설이라 주변엔 건 물들 뿐. 간단한 취사만 가능.
	풀하우스 펜션	울포 해변 숙소. 강아지가 귀여움
남도 체험	하저 어촌체험마을	바지락 캐기 체험용 장화, 바구니, 호미 제공. 목장갑은 가져가야함! <a href="https://www.seantour.com/village/hajeo/main/">https://www.seantour.com/village/hajeo/main/</a>
	순천 기적의 도서관	1호 기적의 도서관(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우리 학교 기숙사와 더불어 故정기용 선생님의 작 품.
	유익한 상점	세상에 유익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편집샵. 사회적 기업, 지역 수공예품, 제3세계 지원 물 품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상품을 판매. 사장 님의 열정이 멋진 가게.
	청춘창고	농협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곳으로, 청년들이 창 업한 음식점과 공예품 중심의 가게들이 있음. 떠오르는 순천의 명소
	순천만 국가 정원	<a href="http://garden.sc.go.kr">http://garden.sc.go.kr</a> 매우 넓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가자.
	순천만습지	<a href="http://www.suncheonbay.go.kr">http://www.suncheonbay.go.kr</a> 6월에 가면 초록 초록한 갈대밭을 볼 수 있 다.

#### 4. 무빙 최종준비 (규칙 및 준비물)

##### I. 2018 움직이는 학교 방가반가반 무빙 규칙

###### 1) 전자기기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는 일과시간 중에는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설정한다.  
자유시간이나 선생님과 떨어지는 모둠활동을 할 경우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 “모듬에 한 사람”만 긴급통화 용으로 비행기모드를 해제하고 다닌다.  
일과시간이 끝난 후엔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취침시간 이후엔 다음날 일정에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차로 이동 중에는 휴대폰으로 이어폰을 낀 상태로 음악만 들을 수 있다.

###### 2) 음주, 흡연

음주, 흡연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무빙 중 음주, 흡연 사건이 벌어진다면 당사자는 즉시 무빙을 중지하고 집으로 귀가 조치한다.  
당사자는 귀가 후 청소년 음주, 흡연에 관한 외부 상담을 받는다.  
당연하지만 무빙이 끝나고 학교에서 음주, 흡연을 할 시 시행되는 철자를 똑같이 밟는다.

###### 3) 용돈

한 달 용돈 4만원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소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잃어버릴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용돈은 정호쌤이 한 달 용돈과 차비만 관리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외에 개인적으로 소지한 돈을 잃어버릴 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돈 자기가 잘 챙기자^^  
용돈은 전체 일정에서 정해진 날짜에만 뽑을 수 있다.  
쓸데없이 기념품 사는 걸 자제하자 돈은 우리에게 피와 살이다.

###### 4) 먹거리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먹거리 철학을 지키도록 하자 왜냐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간디인이니까^^  
지역상권을 많이 이용하자 청산도나 완도를 가는데 라면 같은 거나 먹기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우리는 공정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권을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자



## 5) 숙소규칙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취침시간 이 후에 숙소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어길 시 학교에서 외출외박 금지 규칙 적용)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숙소마다 그 숙소에 규칙이 있을 거다.

예의 없는 짓 하지 말고 잘 지키자 우리만 숙소에서 자는 게 아니다.

## II. 준비물

### < 개인 준비물 >

※ 짐은 개인이 들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며, 큰 짐은 반드시 배낭(백팩)에 준비하며, 보조가방 형태는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 평소 복용하는 약은 반드시 개인이 챙겨야 하며, 각종 알레르기 및 질병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에 알려야 합니다.

세면도구 - 수건, 칫솔, 치약, 샴푸, 비누 등 세면도구 (친환경 제품 사용)

화장품 - 기초화장품, 선크림 등 자외선차단제

옷 - 속옷, 긴바지, 반바지, 긴팔티, 반팔티, 양말(가져갈 옷의 양은 각자 판단해서 정합니다), 샌들(스포츠형), 슬리퍼, 트레킹화 혹은 운동화, 비옷(가방을 덮을 수 있는 크기, 1회용 불가)

기타 - 입을 책(그대의 심심함을 달래줄 거예요), 침낭 혹은 담요(숙박시설에 따라 판단), 비닐(지퍼 팩: 젖은 옷 담기), 개인 컵, 손톱 깎기, 우산, 도시락 통, 수저, 물통, 손전등, 자물쇠(가방이 걱정되는 사람만), 부채, 개인의약품, 비상식량 및 밀반찬(밀반찬은 6월 10일부터 필요), 손수건, 휴대용 휴지, 모자, 필기도구, 수첩(긴급연락처), 지갑, 손목시계, 물티슈, 개인용돈(1인 40,000원 / 순천 기준 귀가 차비 따로 준비), 목장갑(바지락 체험)

물놀이 - 수영복(필요한 경우), 물놀이용 신발

### < 학교 준비물 >

\* 주요서류 : 참가자 인적사항

\* 주요기기 : 노트북, 미니빔

\* 공동 생활용품 : 모기향, 빨래줄, 다용도줄, 반진고리, box테이프, 라이터

\* 의약품 : 종합감기약, 밴드, 연고, 버물리, 진통제, 설사약, 근육통, 벌레 퇴치제, 소화제, 멀미약, 면봉, 자운고

# 서명주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sup>1)</sup> / 5병동 소망의 집

처음 학교에서 소록도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서 전에도 봉사활동을 가보고 싶어서 기대를 많이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소록도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가서 무슨 활동을 할지도 설명을 들었다. 기대도 많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다. 내가 여기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무슨 실수라도 하는 게 아닐지,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싹싹하게 잘 못 대하면 어찌지, 등등 많은 걱정을 했다. 그래서 첫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너무 긴장이 많이 되었다. 첫날 봉사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 회관에 와서도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더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도 많이 되었다. 그래서 다음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더 말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둘째 날부터는 긴장도 조금 많이 풀렸다. 그리고 내가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께서 처음에 우리가 앞치마를 해드리려고 했을 때는 안하시고 간호사분들이 해주시는 것만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치마만 들어도 별떡 일어나셔서 앞치마를 기다리셨다. 웬지 이제 우리도 믿으시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내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할 할머니가 처음에는 내 이름이 어렵다고 못 외우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명주야~’라고 불러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떠다 드리거나 밥을 가져다 드릴 때, 뭘 도와드렸을 때 ‘고마워’하는 한마디가 좋았다. 이 소록도에 오기 전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한참이 지나도 내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내일 오전활동을 끝내고 소록도를 떠나는데 이제 친해지고 익숙해 졌는데 떠나는 것 같아 너무 아쉽고 슬프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일단 이 무빙을 가면서 그렇게 준비한건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냥 소록도를 처음 가봐서 소록도에 관한 책이나 웹툰을 보는 정도가 다였다. 그리고 내가 무빙을 가기 전 기대했던 것은 소록도 봉사활동 이었다. 다른 애들은 무빙 평가할 때 처

---

1)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은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한 내용을 박우제가 옮겼다.

음엔 가기 싫었다고 했지만 난 이렇게 제대로 봉사를 하는 건 거의 처음이고 소록도라는 곳을 새로 알게 되어서 내가 거기서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만 무빙가기 전 가장 기대한 일정이기도 했다.

##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일단 이번 무빙은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다. 특히 우리 조 일정을 진행하는 게 가장 걱정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일 걱정이던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타서 제일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 무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소록도라고 답할 것 같다. 이곳에 봉사활동을 가기 전에는 한센병 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고 소록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 몰랐다. 그런데 이번에 무빙을 가면서 알게 되어서 좋았다. 이 무빙이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지도 모르는 일이어서 무빙으로 소록도에 간 경험이 좋고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었던 내 무거운 가방.. 역시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다. 물론 숙소나 다른 곳에 짐을 두고 움직이는 일이 많았지만 이동할 때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다. 가방만 없어도 좀 덜 힘들었을 것 같다. 이번 무빙은 내가 걱정했던 것들은 다 잘 풀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번 여행으로 여행기획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대로 알았다... 너무 기획이 힘들었다. 하는 사람만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이 나라서 더 힘들었다.

## 3. 청산도+완도/ 강진+보성/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이번에 순천 팀이 일정을 제대로 안 짜서 잘 진행이 안 되었지만 6/19 일정은 무빙 중에 가장 좋았던 일정 중에 하나다. 일단 조를 짜서 간 순천만 국가정원도 예쁘고 볼 것도 많아서 좋았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보고 싶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간 청춘창고도 너무 좋았다. 음식들이 맛있어서 행복했다. 우리 조끼리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 먹어서 햄버거, 감자튀김, 돈코츠라멘, 사케동, 빙수를 먹었는데 다 맛있었다. 그래서 순천에 혹시 또 가게 되면 꼭 다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유익한상점 사장님 말 듣는 것도 재미있었고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날은 마지막에 고기를 먹어서 더 좋았다. 오랜만에 먹는 구워먹는 고기라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우리 조 일정이라 더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6/16 일정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일정 중에 하나다. 바닷가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었고 모래를 파서 사람을 묻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건 아무래도 목욕탕 이었다. 바다에서 놀고 엄청 찻찻한 상태에서 딱 목욕탕을 가니까 너무 좋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아 그리고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아주머니가 우리보고 운동하는 학생들이냐고 했다... 전에 수안보 온천 갔을 때도 아주머니가 똑같은 걸 물어봐서 우리가 그렇게 덩치가 큰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날은 마지

막에 불꽃놀이를 했는데 그것도 좋았다. 그 막 날라 가는 불꽃놀이를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뭔가 바닷가에서 하니까 더 낭만적이고 좋았다. 그리고 완도 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6/12 일에 완도네시아에 간 것이다. 일단 시설도 너무 좋았고 2층에 책 읽고 보드게임 하는 공간이 좋았다. 가족들이랑 완도에 오면 꼭 다시 와보고 싶었다. 그리고 대표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도 재미있고 멋있었다. 혼자 그렇게 여행 다니는 게 너무 멋있었다. 나는 혼자 해외여행은 절대 못 갈 것 같다...

####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우리 병동에 금자할머니랑 명환할아버지 순성할머니 다 금자할머니는 일단 우리를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다. 그래서 마지막 날 가기 전에도 금자할머니가 안아주셨을 때 너무 슬펐다. 그리고 명환 할아버지는 우리가 찾아 갈 때마다 옹기니! 할렐루야! 하시면서 항상 유쾌하게 우리를 반겨주셨다. 그리고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많이 내주셔서 재미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수께끼를 알고 계시나 하고 신기했다. 그리고 순성할머니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병동 중에 제일 늦게 병동에 들어오신 분이셨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보다는 아직 병동에 덜 적응 되신 것 같았다. 할머니는 우리가 밥 먹는 걸 도와드리면 예쁜 아가씨들이 도와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항상 말해주셨다. 그래서 도와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순성할머니는 가끔 이 병원에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하시다고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톱을 깎아 주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서 손톱 발톱 깎아줄 사람도 없다고 했다. 그런 마음이 아픈 말들을 많이 하셔서 더 신경이 쓰이고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 할머니였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분은 하저어촌마을 주인 할머니다. 우리는 그냥 손님일 뿐인데 바지락 해감도 도와주시고 삶아 주시기도 했다. 그리고 라면 먹을 때 먹으라고 맛있는 김치도 가져다 주셨다. 마치 우리를 친 손녀처럼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일단 기억에 남는 분들이 이정도 인 것 같다.

#### 5.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여행을 간다면 좀 더 일정을 알차게 채울 수 있게 할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찾아 봤더라면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나름 우리조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딱 우리 조 일정이 되니까 부족한 게 많았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시 간다면 일정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짜야 될 것 같다.

####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일단 우리 반 애들한테 고맙다. 우리조가 중간에 일정도 바꾸고 그랬는데도 다들 재미있게 놀아준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바닷가에서 미션 이어달리기를 했는데 애들이 다 싫어할 줄 알았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밥도 남을까 걱정했는데 애들이 맛있게 잘 먹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를 잘 반겨주신 소록도 어르신들과 어촌마을 숙소 할머니께도 너무 감사하다. 아 그리고 소록도 병원 간호사 분들도 감사하다. 일주일마다 자원봉사자 가 바뀌어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야 할 텐데 내 생각보다는 무섭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들한테 고맙다. 조 일정이 바뀌거나 차 시간을 다시 알아보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짠 일정이 많이 미흡하고 별로였을 텐데 그래도 믿고 따라와 주신 것도 감사하다. 아 그리고 소록도 일정을 넣어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무빙 중에는 고마운 사람이 아주 많았다. 일단 기억에 남는 사람은 이정도 인 것 같다.





# 강연우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5병동 소망의 집

힘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병동가서 2시간 일하고 다시 와서 자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어딘가는 편하고 어딘가는 불편했다. 일단 병동일은 할 만 했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웠다. 병동 의자에 앉아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봤는데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할아버지들은 내 나이 때 뭘 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언젠가 저런 날들이 올 것인데 더 잘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잘 해드렸다. 짧지만 길었던 소록도 봉사였다. 즐거웠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처음 무빙을 계획할 때 무관심 했다. 딱히 무빙을 좋아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확고하기 때문에 시간낭비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소록도는 정말 가기 싫었다. 안 좋은 편견이 너무 머리 깊숙하게 박혀있어서 내가 과연 그 편견을 깰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그럴 자신도 없었다. 조별로 자유여행을 기획하는 부분에선 처음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무빙도 가기 싫었고 학교에서의 시간이 너무 맘에 들어서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별로 한 게 없다. 버스 시간 알아보고 자료집 만드는 거 말곤 우리 조에게 도움 되는 일은 정말 안한 것 같다.

소록도 첫날 너무 집에 가고 싶었다.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것 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난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일거리가 많지 않고 그 넓은 병동에서 편하게 쉴 공간도 없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나는 너무 힘들었다. 첫날은 그랬다. 하지만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걸 느꼈다. 아마 마지막 날쯤인 것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티비도 보고 밥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 혼자 편해졌다. 점점 더 다가가게 되고 그냥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같았다. 정말 다른 게 없었다. 소록도를 그렇게 보냈다.

청산도 완도는 정말 육지와 같았다. 사람손이 닿아 있는 곳은 촌스럽고 아닌 곳은 자연스러웠다. 청산도에선 딱히 뭘 한 것 같지가 않다. 슬로길 걷고 자고 밥 먹고 자고 등등 계속 이런 패턴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건 숙소, 슬로길, CU 말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슬로길을 걸을 때 그 풍경이 너무 덕산 같았

다. 약간 더 시골인 덕산. 완도는 숙소가 너무 좋았다. 완도 타워? 갔는데 너무 힘들었다. 완도타워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그 앞 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을 찾다가 엄청 빙빙 돌았다. 결국엔 마을을 나와서 처음부터 표지판을 보고 올라가긴 했지만. 엄청 힘들었다.

강진 보성 일정 중 기억에 남는 건 해변, 해파리, 휴식, 템플스테이 말고는 없다. 정말 해변만 갔고, 정말 많이 쉬었다. 템플스테이는 너무 별로였다. 숙소도 별로였고, 스님도 별로였다. 좀 미안하지만 그 스님은 말을 잘하는 척 하고 신문을 안보고 사는 것 같았다. 그런 썩어 빠진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차를 따라주는 사람을 꼭 여자로 고르고 세탁기는 여성을 위한 도구 여성 편리를 위한 도구라고 말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다. 지금 생각해도 뭔가 멀리하게 된다.

순천은 우리가 기획했다. 사전에 우리조가 준비를 너무 안 해서 어리바리한 부분이 너무 많았지만 마무리가 잘 지어진 것 같아서 좋다. 특히 청춘창고는 좋았다. 나중에 한번쯤 거기서 일해보고 싶었다.

사실 자유여행이라는 게 말만 그렇고 너무 형식적이었다. '남도' 라는 것부터 너무 좁았고 사실 놀만한 게 별로 없었다. 20명이 다 같이 한 번에 놀만한 거리가 정말 좁았다. 결국엔 공동체 놀이로 진행했지만 그래도 20명이 다 좋아할만한 공간을 찾는 건 너무 힘들었다. 사실 여행이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않았다. 지금 와서 후회되는 부분이다.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대하는 나는 다 하나같이 필요한 말만 했던 것 같다. 뭔가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보니 어디서 꼬일 것이라는 걸 뭔가 알게 된 것 같다.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라고 하면 더 찾아봐서 4일을 허무하게 말고 내가 정말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위주로 한번 기획해보고 싶다. 이번 무빙은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에 대한 무빙은 아니었다.

일단 무빙을 하면서 뭔가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전화하면 언제든지 받아주던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징징대도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웃어주던 성민이 그리고 우리반, 정호쌤, 수진쌤 너무 수고했고 우리 위해서 짜증도 내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



# 한강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3병동 믿음의 집

어... 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했다. 오기 전에는 정말 와서 고갱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이 덜 들었다. 그래도 4시30분 기상은 아닌 것 같다. 4시 30분 기상이 한 7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을 포함한 대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불쌍했다. 만약에 내 인생에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다고 생각해보면 억울할 것 같다. 봉사를 하며 그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마지막엔 정이 들었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나는 이번 움직이는 학교에서 청산도 조에 들어가 있었다. 준비과정 중 내가 참여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가정학습 때 다 같이 모여서 준비 할 때 빼고는 내가 한 건 거의 없다. 그때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일도 바쁘는데 무빙이 끼어들어서 내 시간을 뺏기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안 한 만큼 다른 애들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한 것이니 우리 조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필리핀을 갈 때에는 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여행에서 기대한 것은 별로 없다. 그냥 여행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나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한번 쯤 가볼만한 여행이었다. 정도로 끝났으면 만족하려고 했다.

##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여행 일정 전체적으로 소록도에서 고생한 몸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게을러서인지 일정에 쉬는 게 많아서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청산도, 완도에서 배타고 움직이는 시간과, 서편제 촬영길을 걷고 나서 중간에 카페에 들렀을 때가 좋았다. 완도네시 아도 시설도 좋았고 거기 사장님도 정말 좋았다.

강진, 보성에서는 밥이 맛있었다. 그리고 바다가 빨이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예뻐다. 하지만 템플스테이는 정말 너무 별로였다. 스님이 하시는 말씀 중 좋은 말을 해주셔도 자신이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별로였다. 하저 어촌 체험 마을은 내

가 뺄을 안 좋아해서인지 별로였다. 낙안읍성은 예전에 가보았던 곳이었지만 경도도 하고 재미있었다.

순천은 순천만이 정말 예뻐고, 청춘창고도 예쁘고 밥도 맛있었다. 순천만 국가공원도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놀아서 재밌었다. 국가공원을 돌아보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다. 보성여관을 둘러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유익한 상점도 기억에 남는다.

3. 청산도+완도, 강진+보성, 순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순천의 순천만이 기억에 남는다. 가장 마지막에 갔던 곳이기도 하고 너무 풍경이 예뻐다. 또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다 못 본 것도 아쉽다.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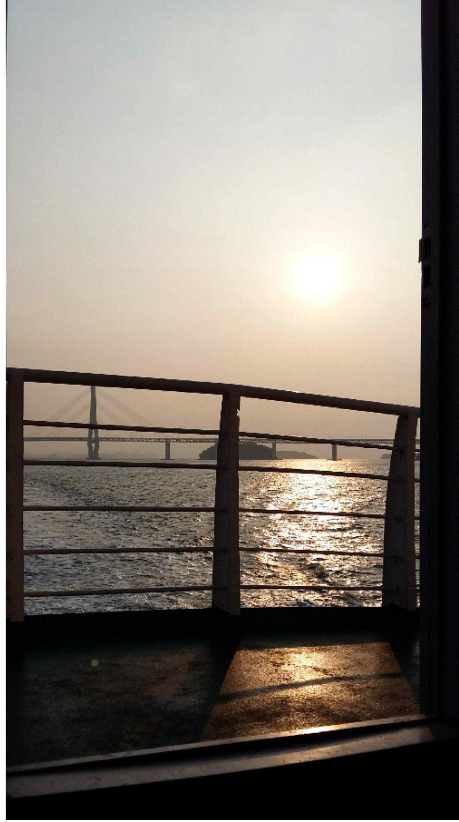
우선 연지네 이모할머니가 기억에 남는다. 연지는 본적도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이렇게나 도움을 주셨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완도네시아의 김영아 대표님이 기억에 남는다. 그분이 차리신 완도네시아라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빠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일과 닮았었기 때문이다. 근데 아빠가 하는 강의를 들을 때는 그냥 아빠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모르는 분이어서 그런지 대단한 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5. 여행을 다시 간다고 하면 어떻게?

여행을 다시 간다고 하면 일단 완도네시아에서 좀 더 머무르고 싶다. 또 여촌 하저마을과, 템플스테이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유익한 상점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기적의 놀이터도 가보고 싶다. 또 여행을 다시 간다면 여행준비 때부터 열심히 할 것이다.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일단 고생해주신 쌤들이 가장 고맙고, 내가 게으름 피워도 우리 일정에서 차질이 안 생기게 해준 우리 청산도 친구들도 고맙다. 또 연지네 이모할머니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인솔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무빙을 하면서 쌤들이 하신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태껏 무빙 중 투덜대기도 한 것 같아 1학년 아름쌤, 영준쌤, 수진쌤 2학년 아름쌤, 윤하쌤 3학년 은지쌤, 상현쌤, 선호쌤이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하다.



# 오우진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2병동 행복의 집

봉사는 처음 해봐서 많이 실수도 하고 어리바리 해서 같은 병동인 친구들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럽다. 봉사를 하고 많은 걸 배운 거 같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 막 기부하고 연탄 나르고 뭐 그런 봉사를 하는 모습이 그냥 다 가식이라고 생각했다.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네!’, ‘뭐가 좋나 나만 손해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 소록도로 봉사를 하러 온다고 할 때 정말로 가기 싫었다.

그렇지만 학교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고 병원 봉사를 했을 때 충격을 좀 (받았다.) 교육처럼 정말로 이분들이 힘든 삶을 사셨다는 것을 느꼈다. 점점 병동봉사를 하면서 ‘봉사는 가식적이야 나만 손해야’라는 생각이 사라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인데 정말로 진심으로 해야겠다고 느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꾼 거 같다. 소록도 덕분에 앞으로는 바른 마음으로 봉사를 할 거 같다. 정말로 많은 걸 배웠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처음에 무빙 조를 짜고 애들끼리 어디 갈지 회의를 하는데 소록도 근처에는 섬밖에 없어서 그냥 근처 섬으로 여행을 하자고 했다. 난 섬을 싫어하지만 회의에 집중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섬에 가는 줄 몰랐다. 음 아무튼 연지네 지인분이 청산도에 사신다고 해서 무작정 도움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뭐 도움을 주신다고 하셔서 청산도로 결정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완도도 가기로 했다. 진짜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회의 때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 같다.

회의 때 각자 역할을 나눴는데 나는 숙소담당이었다. 난 그냥 전화 몇 번 한 거밖에 없다. 별로 알아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우리가 간 청산도 숙소, 완도네시아 숙소는 내가 알아본 게 아니다. 말만 숙소담당이지 실제로 한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한 같은 조 친구들과한테 미안하다.

우리 조 여행테마는 ‘정오를 피해라’였다. 그렇게 정한 이유가 여름이라 엄청 더울 텐데 돌아다니는 건 너무 힘드니까 가장 더운 정오를 피하자 해서 정오를 피해라가 주제가 됐다. 그래서 쉬엄쉬엄하는 여행을 기대했다. 중간에 까일 줄 알았는데

데 진짜 돼서 내가 했던 무빙 최초로 쉬엄쉬엄한 여행이 생겨서 우리 조 일정이지만 기대를 많이 했다.

##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일단 우리 조 여행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쉬엄쉬엄해서 좋긴 한데 우리 조가 나머지 사람들 인솔하고 밥하고 다 해야 되서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었다. 애들한테 시달리는 데 와~ 다시 한 번 뺨들에 고충을 느낄 수 있었다. 어 우리 조 일정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른 조들에 비해 우리 조가 잘 인솔한 거 같다. 청산도, 완도 일정 중에 같던 장소가 별로 예쁘지 않아서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조 일정도 하나같이 다 쉬엄쉬엄해서 너무 좋았다. 4년 동안 했던 무빙 중 가장 하는 거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딱히 남는 건 없지만

## 3. 청산도+완도/ 강진+보성/ 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청산도+완도는 가장 좋았던 숙소인 완도네시아가 기억에 남는다. 숙소가 너무 좋았다. 뜨거운 물도 잘나오고 숙소도 예쁘고 에어컨도 잘나오고 와이파이드 있고 조식도 맛있고 정말 좋았다. 완도네시아 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긴 했지만 어... 사실 뭐라고 강의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강의를 들을 당시에는 여기로 개인무빙 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가겠다. 완도네시아는 무빙 중에서 가장 좋은 숙소였다. 그 좋은 숙소에서 하루만 잔 게 아쉽다.

강진+보성 음... 울포해변에서 물놀이 한 거?? 바다 속은 빨리고 해파리가 넘쳐나긴 했지만 그래서 무빙 때 했던 유일한 물놀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 같다. 거기서 마루랑 해파리를 너무 많이 죽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정말 사이코인 거 같다. 미안 해파리아

순천은 청춘창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청춘창고라는 곳에 간다고 해서 어떤 '단체에 가서 설명만 듣고 오겠구나'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단체가 아니었고 그냥 음식 파는 곳 이었다. 너무 행복했다. 위염에 걸렸지만 미친 듯이 먹었다. 거기서 먹은 돈코츠라멘, 햄버거, 빙수 하나 같이 너무 맛있었다. 무빙하면서 다시 한 번 와보고 싶다고 느낀 장소는 청춘창고가 처음이다. 그 정도로 좋았다. 그리고 아까 위염 하니까 생각난 건데 꼬막정식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망할 꼬막정식만 안 먹어도 갑자기 위염에는 안 걸렸을 텐데 처음에 꼬막을 먹을 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치만 딱히 먹을 게 꼬막 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숙소에 오니 속이 안 좋았다. 그러다 곰팡이 핀 에어컨 냄새를 맡고 속이 뒤집어져서 토를 진짜 겁나게 많이 했다. 내 몸에 있는 장기가 다 나오는 느낌이었다. 하 다시는 꼬막 같은 거 안 먹을 거다 멸종이나 해라 망할 꼬막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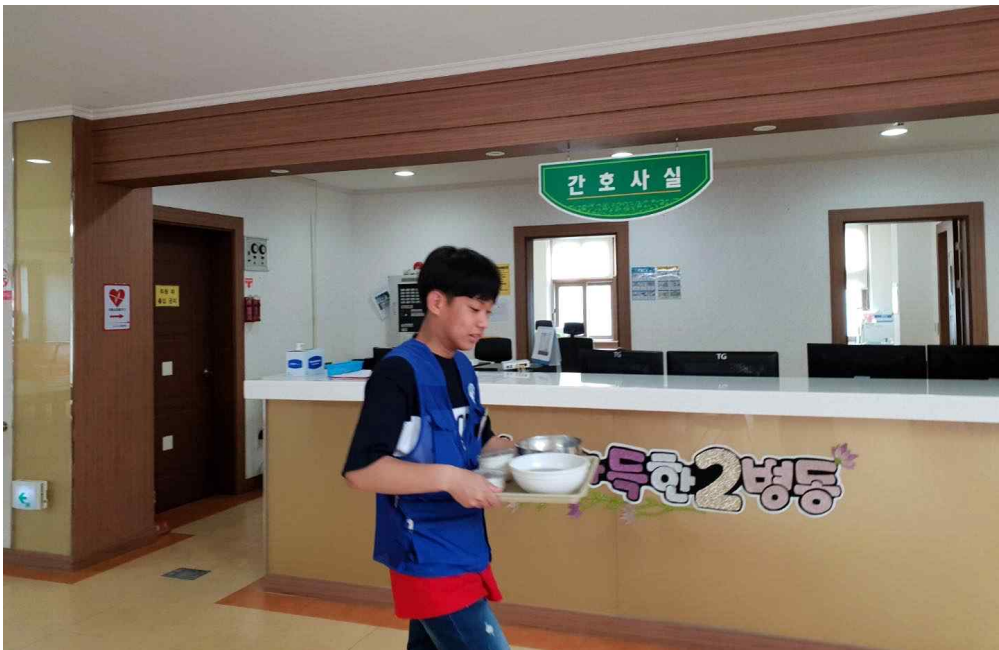
청산도 일정 중에 조 끼리 정해진 장소에 가서 미션하고 오기가 있었는데 거기 미션 중에 청산도 현지인이랑 사진 찍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사진 찍은 할아버지가 기억에 남는다. 그냥 사진 찍어달라고 했을 때 엄청 친절하셔서 기억에 남는다.

5.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여행을 간다 해도 지금처럼 갈 거 같다. 일정도 쉬엄쉬엄 인 게 좋고 내용은 없는 게 좋고 마음가짐은 예초에 없었다. 나는 4학년 무빙을 만족스럽게 했기 때문에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해도 똑같은 일정에 똑같은 마음가짐일 거 같다.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나다. 중간에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하고 온 거 같아서 나한테 고맙다



# 권태운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6병동 사랑의 집

이번 봉사는 태어나서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주었다.

1. 가장 오래 가장 일찍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
2. 병원에 가장 오래 있는 경험을 했다.
3. 처음으로 봉사다운 봉사를 하였다.
4. 처음으로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보고 도와드렸고
5. 처음으로 힘들었지만 몸이 스스로 움직인 봉사였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우리 조는 가고 싶은 곳을 각자 찾아보고 하나로 모아 동선을 생각하며 여행지를 추려냈다. 그리고 추려낸 여행지들한테 연락을 모두 김담이 하면서 사실상 나는 조장임에도 애들을 앞에서 이끌어 주거나 우리 조 모두에게 일정을 공유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지만 조장이 되고 아무생각 없이 진짜 하는 사람만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도 나름 우리가 짜놓은 일정은 괜찮다고 생각했고 그중 나는 개인적으로 청춘창고가 기대 되었다 왜냐하면 살면서 푸드트럭? 같은 곳에서 밥을 먹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개인적으로 4학년 무빙은 진짜 일정 짜고 인솔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배움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정을 하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정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각자 다른 배움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정도 많지 않아 이번 무빙은 추억 만들기가 적당한 거 같다.

3. 청산도+완도/ 강진+보성/ 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청산도+완도 일정에서는 소록도 다음이어서 그런지 다른 무빙과는 다른 많은 양에 쉬는 시간이 마음에 들었다. 소록도에서 있었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고 이때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서 쉬는 시간이 좋았던 거 같다. 강진+보성 일정에서는 완도네시아 강의를 재미있게 봤던 거 같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건축

관련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건축에 대해 1도 몰라 사실상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던 상황이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건축이야기는 거의 없어 약간 아쉽고 그 분과 나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영어실력, 자신감, 기본 지식) ‘나도 저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했다.

순천 일정에서는 예상 외로 나는 기적의 도서관이 너무 좋았다.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도 책을 안 읽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기적의 도서관이 좋았던 이유는 내 생애 몇 없던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어 보고 집에 가서도 이 책을 찾아서 읽고 싶은 생각을 하였는데 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 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미래에도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이번 무빙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이다.

####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나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잠깐 잠깐 본 외국인들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내 생각에는 외국인들은 너무 멋진 거 같다. 어디에서 무얼 하든지 외국인이 있으면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이곤 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잠깐 만난 외국인이 뭘 물어 봤는데 얼추? 대답은 해주었지만 그 분이 말하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대화가 약간 힘들었다. 그래서 진짜 잠깐 영어 공부를 해볼까 했었다.

#### 5.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나는 이번 무빙과 달라질 자신이 있다. 일단 이번 무빙에서 우리조가 개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간다면 빵꾸나지 않도록 초반에 열심히 달릴 것이다. 일정과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도 약간엔 어리바리도 없이 잘 정돈된 일정을 가지고 여행할 것이다. 편지에도 적었지만 나중에는 나 혼자서 여행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다시 여행을 가고 싶지는 않다.

####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이번 무빙을 통해 1, 2, 3학년 담임선생님과 부담임선생님께 우리가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무빙을 통해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셨고 힘드신지 지금 1, 2, 3학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번 무빙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나는 뭐하지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했던 것도 모조리 운동밖에 없어서 내 미래가 심이 걱정된다. 그리고 저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나만 뒤쳐져있고 나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 같아 너무 무섭다. 그래서 책이라도 읽어 보자 했는데 역시 책을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인지, 나와 맞지 않는 건지 책으로 배움을 얻기는 힘든 거 같다.



# 김재하

\*재하는 김스를 풀어야 해서 소록도가 아닌 완도에서 합류했습니다.

음직이는 학교 소감문

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내 기준에서 불필요하거나 해야 할 책임을 느끼지 못한 것들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이런 점은 앞으로 내가 고쳐야하는 부분이다) 난 이번 무빙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필리핀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무빙의 전체적인 지역과 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냥 하기 싫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같은 조 애들이 짜놓은 일정을 자료집에 들어갈 수 있게 편집하는 게 여행을 준비할 때 내가 한 유일한 일이었다.

다친 왼쪽 손의 재활 때문에 첫 일주일 소록도 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청산도 일정부터 내 무빙이 시작되었다. 청산도를 거쳐 완도, 강진, 보성, 순천으로 이동을 했다. 애들이 일정을 짜느라 참 고생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세세하게 잘 짜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특히 숙소들이 참 좋았다. 가는 숙소마다 에어컨이 있었고, 다 편하게 폭 잘 수 있는 곳들이었던 것 같다. 기상시간도 전체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었다. 여행의 대부분이 누가 깨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 만큼 자고 내 스스로 일어났던 것 같아서 진짜 행복했다.

그리고 4년 동안 같이 다니다보니 확실히 우리끼리의 단합력이 좋아진 것 같았다. 이번 무빙에서는 특별히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기억에 남을만한 의견충돌도 없었고, 큰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들이었다. 내년 해외이동학습 갈 때는 더 좋아져있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은 내가 준비과정에 참여를 안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애들이 짜놓은 일정대로 돌아다니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내가 아는 일정 없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 건 너무 재미없었다. 이런 것들이 내가 무빙에서 얻거나 느낀 것들이 없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정! 청춘창고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다. 우선 건물의 바깥 이미지와 그 내부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음식들도 너무 맛있었다. 가게들도 멋있었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멋있었다. 나중에 졸업하고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잠깐 생각했었다.

여행지에서 만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완도네시아 김영아 대표님이었다. 그

분의 인생이 너무 멋있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여행을 했는지 이야기를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몰입되었다. 완도네시아가 만들어진 이유와 배경도 멋있었고, 진짜 대단한 분 같았다.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은 나라들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여행을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준비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거다. 여행이란 건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만큼 얻는 것 같았다. 준비할 때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일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내가 애들을 안내할 수도 없었다. 내년 해외이동 학습 때는 이번 여행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거다. 우리 조 친구들한테 제일 고맙고 미안하다. 준비할 때도 그렇고 여행 와서도 그렇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이번 무빙에서 내가 얻은 것들과 기억에 남는 것들은 별로 없었다. 그래도 ‘반 친구들이랑 이런 여행을 했다’가 의미 있는 것 같다.



# 운수민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2병동 행복의 집

이 섬에 오기 전에는 솔직히 걱정이 됐다. 애초에 한센병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 오셨는지 이때까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소록도로 오시게 되었는지 등등 내가 봉사활동을 가는 그 섬과 사람들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었다. 학교에서 소록도와 한센병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후조쌤이 걱정하시던 대로 혹여나 말실수를 하진 않을까, 행동을 잘못하진 않을까, 어르신들의 모습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진 않을까 라는 걱정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다.

많은 걱정을 안고 봉사활동을 하러 소록도로 들어와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거부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생각보다 병원 시설도 좋았다. 하지만 내 성격상 불임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르신들과 친근하게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일주일마다 새로 오는 봉사자들에게 똑같은 걸 가르쳐줘야하니까 많이 예민하셔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병동마다 분위기가 달랐고 내가 봉사하던 행복병동은 안타깝게도 어르신들이 우리가 말 걸고 이야기 하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려워 몇 번씩 되문게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답답해하시기도 했다. 결국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다.

언제, 어디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하루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 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병동 급식이 진짜 엄청나게 맛있어서 행복했다.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계셨다. 눈이 안보이시는 할머니셨는데 내가 죽과 국을 먹여드렸었다. 비록 며칠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할머니 얼굴을 자주 보다보니까 특별히 신경이 더 갔던 것 같다. 봉사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을 가르쳐드리고 나왔다. 뭔가 기분이 묘하면서 좋았다. 할머니께서는 내가 이제까지 온 수많은 봉사자들 중 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진 모르겠다. 하지만 평생 내 기억에 남을 분이었고 이 봉사활동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무빙을 가기 전, 안 그래도 바쁜 일상에 무빙 일정준비까지 꺼서 너무 힘들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하고, 하나에서 둘로 가는 소수점까지 준비하는 느낌이었다. 인간 20명의 특성을 고려해야하고 이동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했다. 이때까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다. 기획할 때 귀찮은 마음에 빨리 빨리 하려고 청산도를 걸핌기로 찾아봤다. 인터넷을 뒤지니 청산도 슬로길이 유명하다기에 걷기로 하고, 옆이 바로 바다니까 수영도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다. 청산도를 깊숙이 찾아보고 관광지가 아니라도 가볼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봤더라면 형식적인 여행이 아닌 진심으로 청산도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다. 준비한대로 걸핌기 정도인 여행이었다.

##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우선 너무 자주 이동했고, 여행지의 특성을 알기 어려운 일정이었다. 숙소와 지역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행지를 알고 즐기려고 하기보다 이동 때문에 다들 지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다. 일정을 계획할 때는 좋다고 생각한 것들이 실제로 해보니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하기 싫었다. 자유여행을 하고 남은 것은 추억밖에 없는 것 같다. 3학년 제주도 무빙과 다른 게 없었다. 그나마 3학년 무빙은 제주도의 역사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여행이었지만 이번 남도여행은 그런 부분도 잡지 못했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다. 친구들과 노는 목적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완벽한 여행이었다.

## 3. 청산도+완도/강진+보성/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내가 청산도+완도 팀이기 때문에 청산도가 제일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 매끼니 밥을 해주고 챙겨주고 뒷정리 하는 게 죽을 만큼 귀찮고 힘들었다. 어찌나 더럽게 먹던지... 애들이 먹고 일어난 자리는 동물들이 밥 먹고 간 것 같았다. 그리고 완도네시아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시설이 좋았다. 물론 풍경은 덕산 같았지만 슬로길 걸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청산도에서 다운이랑 연지랑 섬 구경을 하러 갔었는데 그 때 간 등대도 재미있었다.

##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소록도를 빼고 말한다면 보성 목욕탕 아줌마와 우리에게 말을 거신 많은 주민분들이다. 우리가 지나가면 마치 입을 모은 것처럼 하나같이 어디서 왔냐고, 운동하는 학생들냐고 하셨다. 전에 청풍호 목욕탕 갔을 때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처음으로 진짜 그렇게 보이냐...?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유익한 상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도 기억에 남는다. 너무 멋있었고 자신의 꿈과

생각이 뚜렷하신 걸 보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5. 다시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일정, 내용, 마음가짐)

꼭 적은 인원수를 데리고 가겠다. 20명을 데리고 다니니 너무 힘들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간다면 여행의 내용도 알차게 짤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관심분야 쪽으로 여행을 간다면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겠다.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무빙 무사히 끝낸 방가반가반 친구들!!! 그리고 정호쌤, 수진쌤, 후조쌤!!!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ㅎㅎ소록도에서 예민하셨을 텐데 친절하게 알려주신 간호사분과 장기봉사자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감사해요. 청산도에서 미치도록 맛있는 전복과 각종 회를 주문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신 연지네 이모할머니와 정말정말 맛있는 장조림 보내주신 원이 어머님께도 감사합니당! 하나같이 친절하게 해주신 청산도, 완도, 보성, 강진, 순천 지역주민 분들도 모두 감사해요!!!



# 조연지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3병동 믿음의 집

다 좋았다. 그리고 매번 바뀌는 봉사자들을 가르쳐주시는 간호사분들이 힘든 것을 알려주셔서 좀 더 좋았다. 봉사하면서 힘들었던 건 할머니에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아들었던 것과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다. 좋았던 건 할머니들이 날보고 웃어주시는 것과 밥 챙겨드리기 손 소독제 바르기, 같이 이야기하기가 있다.

처음 세안해드릴 때 내가 작게 말해서 할머니들이 못 알아들으셨는데 난 모르고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생각 했는데 나중에 크게 말하니깐 할머니들이 대답도 해주시고 웃기도 하셨다.^\_^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며칠 만에 쉽게 친해질 수 있던 것 같아서 좋았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밥 드리고 우리 밥 먹으러 갈 때가 제일 좋았다. 병원조리사 분들이 엄청나게 음식을 잘하시는 것 같았다. 밥이 진짜 맛있었다! 또 할아버지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장기도 두고 해서 재미있었다. 301호 옥순 할머니랑 손잡고 얘기하면서 웃어주시니 힘들지가 않았다. 그리고 원숙이 이모는 웬지 모르게 빠르게 친해져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 우리가면 누구랑 있냐고 그러셔서 내가 나중에도 그분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간식 챙겨드려야 하는 금연 할머니는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아 보였다. 내가 할머니 예쁘다니깐 못생겼다면 계속 그러셔서 내가 계속 예쁘다고 해드렸다. 간호사분들께 인사할 때 웃어주시면 기분이 좋았다. 305호 이순식 할머니랑 같이 공연을 보러갈걸 후회가 된다ㅠㅠ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리고 할머니 눈이 예쁘시다!! 끝!! 마지막으로 봉사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셨다. 정말 좋았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초등학교 때 여행을 준비해봤었다. 근데 그때와 똑같이 힘들었다. 진짜 하지도 않으면서 손가락 없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날 힘들게 했다. 시간도 없는데 안한 사람한테는 다시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하니깐 답답했다. 같이 한 번에 하면 좋을 텐데 다음에 또 여행을 가야 할 때는 시간을 더 잘 쓰고, 모두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사전답사도 가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여행가기전 가장 기대가 되었던 건 소록도이다. 난 봉사를 싫어했다. 해본적은 없지만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받는 일을 왜 할까생각했는데, 경험 하고 오니깐

정말 돈을 드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았다.

이번 무빙은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일정을 보면서 기대할 시간이 없던 것 같다. 예전에 쌤들이 짜주셨을 때 는 일정을 보면서 뭐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정을 짜니깐 그냥 일정 짜느라 바빴던 것 같다. 그래도 여행은 재미있었다. 가방을 들고 이동 하는 게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애들이 짠 곳에 가는 건 피나 재미있었다.

그래도 가장 생각나는 곳은 청산도+완도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팀이 일정을 짤기 때문이다. 밥을 너무 많이 해먹여서 너무나도 힘들었고 또 어찌나 밥을 잘 먹는지 3일 만에 20키로를 먹었다. 정말 우리 반 대단한데 정말 힘들다 밥하기도 생각했던 것 보다 코스를 걷는 게 빨리 끝나서 시간이 매번 남아돌았다. 그래서 가끔 마을도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재미있었다. 날씨만 좋았어도 더 좋았을 텐데, 계속 비가 와서 그래도 덥고 습하지 않고 시원하고 습해서 참 다행이었다.

이번 무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2분이계신데 한분은 소록도에서 만난 원숙이 이모고 한분은 완도네시아 사장님입니다. 소록도에서 만난 원숙이 이모는 소록도 3병동에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분이다. 8월 달에 또 가서 보고 싶었는데 6월 19일 날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다. 사실 아직도 믿는 마음 반, 아닌 마음 반이다 그래도 소록도 봉사활동을 간 덕에 원숙이 이모를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좋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하지 않은 내가 정말 싫다. 좋은 곳에 가서서 평소에 못 드신 음식들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사람일은 모른다는 걸 새삼 느꼈다. 아직 살아있는 분들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기억에 남는 분은 완도네시아 사장님인데,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부러운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난 내가 편한 곳만 찾아다니는데, 이분은 엄청 도전적이시다. 인생을 아깝지 않게 보내시는 것 같아서 부럽다. 인턴십으로 오고 싶다.

무빙에서 고마운 분들이 참 많다. 일단 소록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원숙이 이모와 완도네시아 사장분도 감사하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청산도 숙소를 싸게 오래 빌려주신 분들도 숙소 알아봐 주시고 계속 도와주고 또 전복까지 사주신 우리 외할머니와 회를 싸게 사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전복죽과 블루베리, 김치를 주신 이모할머니도 감사합니다. 울포해변에 가서 모래에 묻혀주신 이봄과 수진쌤도 감사를 드린다. 묻혀 주신 덕에 더 재미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잉여조 팀 정말 수고했다. 애들 밥하느라 강진+보성팀이랑 별교+순천팀도 수고했다. 열심히 일정이랑 밥 줘서 고마웠다. 우리 반이랑 같이 무빙 가주신 정호, 수진 쌤 감사합니다~

# 홍수정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5병동 소망의 집

처음에는 엄청 힘들 것 같았다. 근데 생각보다는 별로 힘들지 않았고 좋았다. 월요일에는 어색하게 의자에만 앉아있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별로하지 않았는데 화요일 수요일이 될수록 시간이 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09방에 사시는 영환 할아버지랑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하지만 506방에 사시는 오른 쪽 창가에 계시는 할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실 503방에 계시는 이순성 할머니도 기억에 남는다. 영환할아버지는 화요일부터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올커니!'와 '할렐루야'를 하신다. 우리에게 매일 음료수와 과자도 주시고 수수께끼도 많이 내주셔서 정말 재미가 있었다. 우리를 이렇게 많이 주시면 '할아버지 드실 게 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주셨다. 그래서 다은이에게 박카스같은 음료들을 사오라고 부탁을 전하라고 하신다. 오늘 그걸 구경하는데 너무 웃겼다.

506방 할머니는 우리들 이름을 외우셔서 기억에 남는다. 의자에 앉아서 다은이가 영환할아버지에게 이름을 알려드리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보셨다. 그때 이태훈이랑 강연우가 이름표를 안 하고 있어서 할머니가 남자 애들은 건방지다고 잘 흘리고 다닌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약간 우리 할머니랑 이야기 하는 기분이 나기도 했다. 순성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시는 할머니이다. 다른 분들에게는 506방 할머니와 순성할머니는 조금은 정이 들어버린 것 같다. 생각보다 좋은 봉사였고 의미 있고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거 같다. 다음에 시간과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처음에 준비하고 계획을 할 때는 '이걸 왜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반 친구들이 기억을 잘 안하는 스타일이어서 내가 모를 때 물어보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학기 중이므로 안 그래도 일도 많은데 일들이 더 쌓이고 쌓여서 미루다보니 이동이나 일정계획들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나는 준비 과정에서 그리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다. 다들 시간이 맞지 않



아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했고 내가 시간이 어중간해서 애들이 하고 있는 중간에 가다보니 할 일이 없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무빙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냥 걱정만 엄청 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여행인데 잘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실수는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로 무빙을 떠났던 것 같다.

##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여행을 시작한 첫날은 소록도에서 바로 나온 날이기도 했고 배와 버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타서 온몸의 기운이 정말 쪽쪽 빠지는 날이었다. 청산도 에서는 기대한 것 보다는 조금 덜 했지만 만족스러웠다. 내가 생각했던 청산도는 사진 같은 그런 곳 이었는데 청산도에 있는 내내 날씨가 흐려서 그리 예쁘지는 않았지만 걷기에는 좋았던 날씨였다. 완도도 타워에 올라가는 것만 빼면 다 좋았다. 타워 위에서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완도네시아가 너무 좋았다. 시간만 된다면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곳이다.

이 다음 일정은 우리 팀 이었는데 버스시간 때문에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했다. 그래도 버스 놓치는 것 없이 잘했던 것 같다. 근데 가끔씩 길들을 잘 못 찾아서 걱정이 조금씩 되기도 했었다. 나름 밥도 잘 해서 먹였고 좀 많이 쉬기는 했지만 공룡박물관이 재껴지고 물놀이와 목욕탕을 가서 좋았다. 순천 팀은 처음부터 불안했었다. 거의 첫날은 정호쌤이 이끄시는 느낌이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일정이기는 하지만 식단과 정확한 일정들이 없는 듯싶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하고 짜증도 났다. 그래도 계획이 없었던 것 치고는 잘 끝난 것 같다. 서툴고 힘들었던 여행이었지만 모두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서 좋았다.

## 3. 청산도+완도/ 강진+보성/ 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모든 일정들이 다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을 뽑아보라면 당연히 강진+보성일정이다. 왜냐하면 우리 팀 일정이기도하고 당연하겠지만 제일 고생도 많이 한 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일정들이 가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음으로 계획한 일정이었고 그 당시에는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정들이었겠지만 모두 좋은 일정이었다.

##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내 생각에는 연지네 할머니가 아닌가 싶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런 듯하다. 그리고 하저에서 민박 주인집 아주머니(할머니?)도 기억에 남는다. 부탁드려도 죄송한데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 잘 챙겨주셨다. 또 완도네시아 사장님 이랑 백련사 원정스님과 팀장님도 기억에 남는다. 사람은 아니지만 풀하우스에 있

있던 강아지, 백련사에 정진이랑 보리, 낙안읍성에서 새끼 꼬는 곳에 계셨던 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사실 전부 고마웠던 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다.

5.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일정, 내용, 마음가짐 등)?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여행보다는 더 잘 짜고 싶다. 못 가본 다른 곳들도 가보고 실수 없이 잘 준비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다.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우선 소록도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가장 고맙다. 처음 온 학생들이 어설퍼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기억에 남는 사람들에서 전부 말한 것 같다. 연지네 할머니, 하저에서 민박 주인집 아주머니, 완도네시아 사장님이, 백련사 원정스님, 팀장님. 모두에게 정말 감사했고 죄송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정말 고마운 분들 중에서는 가장이라는 것은 뽑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우리와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소록도 5병동 소망의 집에 계시는 분들께 가장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무빙을 함께 해주신 정호쌤과 수진쌤께도 너무 감사하고 소록도에서 같이 있었던 후조쌤께도 감사하다. 정말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 이래훈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5병동 소망의 집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그렇지만 막상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봉사를 하면서 매일 일찍 일어났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 진짜 일찍 일어나는 일이 눈도 겨우 겨우 떠지고, 몸도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다. 평소 하지 않았던 일과라서 그런지 적용하기 힘들었고, 피곤했다.

첫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다가가는 게 어렵고, 어색했지만 며칠 동안 생활 하면서 가까워 질 수 있어서 좋았다. 퀴즈를 내시면 맞추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운동도하며 돌아왔던 것이 좋았다. 나의 도움 하나하나가 뜻 깊었다. 도와드리니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럴 땐 더 뿌듯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일들이 너무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다. 그 뒤로 봉사활동 중에 우려한 일은 없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만 제외하고 불편한 점도 없었다. 일이 끝나고 밥을 먹는 시간엔 기분이 좋았다. 식사시간에 식당으로 가면 늘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간호사 분들도 좋으신 분들도 많았고, 봉사하면서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남은 것 같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이번 무빙 준비를 하면서 전라남도에선 할 게 있을까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간디인들 중에서도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광주에 한번 가본 것과 집중식 때문에 해남에 간 것 외엔 전라도에 가본 적이 없었다. 전라도에 가본 적이 적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무빙을 소록도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봉사가 끝나면 전라남도에서 자유여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다.

걱정은 생판 소록도란 곳을 모르고 있다가 가끔씩 후조쌤께서 말씀 해주실 때만 '그런 곳이 있었구나'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다. 근데 소록도에 이번 무빙으로 봉사 활동을 하러간다니 봉사를 하는 것도 별로였고, 봉사하러 소록도까지 가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다. 또 자유여행 일정을 우리가 짠다는 것도 걱정이 되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모 아님 도가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마흔한 편으론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무빙에서 기대했던 건 지금까지 무빙은 쌤들이 짜주시는 일정이었었는데 쌤들의 도움 크게 없이 우리가 짜고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일정을 나름 꿈꿔 왔던 게 있어서 해외이동학습 전에 우리끼리 짠 일정으로 가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다.

여행 갈 지역을 나눠서 지역마다 팀이 짜져서 일정을 기획하고 그런 건 좋았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나눠진 지역에서 할 게 없었다. 할 만한 게 있다고 하면 이동수단이 없어서 포기를 하거나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일정을 바꿔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원래 강진, 장흥이 일정이었으나 장흥에서 일정을 맞추는 게 힘들어서 장흥 대신에 보성을 넣었다. 이쪽 지역에 대해 잘 몰랐기에 일정을 짜고 숙소를 정하고 하는 일이 세세하게 짜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서기로써 자료집을 만들면서 다른 팀이 일정을 짠 걸 넘겨받았을 때 ‘무빙 잘 갈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고, 걱정돼 둘러싸여 무빙이 시작된 것 같다. 소록도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끼리 짠 일정으로 여행이 시작될 때 나는 이미 피곤해서 완전 쉬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난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던 것 같다.

청산도에 가선 쉬고 싶은 게 완전 소원이었다. 청산도 팀 덕분에 늦잠도 잘 수 있었고, 숙소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일정들에 잘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청산도에 있는 범바위에 갔을 땐 시원했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아서 좋았다. 정상에 도착해서 인증샷 찍고 밥 먹고 하는데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서 좋았다.

우리 조 일정으론 템플 스테이를 했는데 휴식형이라 무리한 건 없었는데 다 좋았다가 마지막에 차 마시면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맘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에 108배를 하는데 잠이 너무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며칠 있다가 순천 팀으로 넘어가서 이동만 하면서 다녔던 것 같다. 낙안읍성에서 놀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청춘창고에서 밥도 먹고 이동을 많이 한 만큼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 같다.

이번 여행은 원래 계획 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쉬웠던 게 하나 둘이 아니라서 성공적이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마무리 하면서 아픈 애들도 생기고, 미니빔도 부주의로 잃어버리는 바람에 많은 이들에게 피해도 가고 보성여관에서도 월요일이 휴관인 걸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다. 일정이 너무 비어있어서 즉석으로 할 걸 만들어내고 그랬던 것 같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만 꼽으라면 우리 팀 일정이다. 템플스테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바지락도 잘 캐고 근데 너무 더웠던 게 함정이었지만 나중엔 잘 먹었다. 그리고 우리 무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물놀이를 엄청 기대하고 물에 들어갔는데 발이 폭 빠지더니 신발이 벗겨지면서 갯벌이 가져가버렸다. 계속 찾으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갑자기 손에 켈리 같은 것이 만져져서 봤더니 해파리였다. 무섭고 놀래가지고 신발 찾기를 포기하고 물에서 나왔다. 그리고 마침 썰물이라서 기억에 나는 자리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신발을 찾았던 것 같다. 고맙게도 다

른 애들도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었다.

지금도 완전 후회하고 있는데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는 건 내 발을 버리겠다는 행위였다. 신발 찾겠다고 맨발로 갯벌에 들어갔는데 발바닥을 진짜 심하게 다쳤다. 양쪽 발 다 발바닥이 완전 많이 까지고, 한 발자국 이동 할 때마다 빠지고, 완전 말도 아니었다. 제대로 된 물놀이는 전혀 하지 못하고 갯벌에서 신발만 찾다가 시간이 다 갔고, 결국 울포해변에 신발을 묻힌 채 두고 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이번 무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같다. 다음날에도 물놀이를 했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제대로 놀지 못하고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되는데 너무나 아쉬움만 남은 것 같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 하면 딱히 없었는데 스쳐지나간 사람도 가능하다면 백련사의 스님께서 차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나 마지막에 정 떨어지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또 청춘창고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밥 먹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맛있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조를 더 많이 나눠서 하루나 이틀 정도로 일정을 짰걸로 팀끼리 나눠져서 여행을 다녀와서 모이는 것도 추가 하면 좋을 듯하다. 20명이 다 한 번에 이동하는 거나 서로 하고 싶은 거나 생각도 다를 텐데 주제를 정해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획하고 다녀와도 괜찮을 듯하다. 그리고 봉사는 꼭 있으면 한다. 분명 하기 전엔 별로였지만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분명 있다.

마지막으로 무빙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 하면 부모님이 떠오른다. 비록 무빙을 같이 가진 않았지만 무빙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늘 나의 뒤를 받쳐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모님이 가장 감사드린다. 물론 쌤들과 우리 반도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



# 하정민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2병동 행복의 집

처음에 소록도 봉사하러 간다고 할 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먼저 말 걸고 대화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 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도와드리는 사를 처음 해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도 잘 안 잡혔다.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게 어려웠다. 걱정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을 걸었을 때 웃으면서 대답해주시고 자신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재밌기도 하고 좋았다. 마지막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못 나눠서 아쉽다.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을 거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했다.

저녁에 자기가 오늘 병동에서 뭐했는지 어르신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부러워서 내일은 잘 해야지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어르신들이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항상 수고했다.',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고 먹을 것도 많이 주셔서 감사했다.

할머니 상처 치료하시는 동안 팔을 잡고 도와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아파하셔서 보는데 뭔가 같이 아픈 느낌이였다. 하다 보니 물 떠다드리기, 식사수발, 세수 등 재밌었다. 5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시는 쉽게 못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짜준 일정으로 무빙을 다니다가 우리끼리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 남도에 거의 가본적도 없고 아는 것 도 없어서 무빙을 준비하고 시작할 때 까지 좀 불안했다. 무빙준비를 할 때 다 같이 하지 않고 하는 사람만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나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했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알아봐서 가는 무빙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떨까 그런 걱정과 기대가 되었다. 버스를 5시간정도 타고 남도로 떠날 땐 너무 힘들었다. 가방을 매고 다니는 건 크게 힘들지 않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웠다. 청산도에서는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했지만 그 다음부터 너무 더워서 걷는 것도 힘들었고 그냥 너무 더웠다. 땀이 나서 짹짹하고 고통스러웠다. 숙소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했고 다행

이었다. 날씨가 더운만큼 썬크림도 열심히 발랐지만 피부가 많이 탔다. 화장을 하는 것도 귀찮고 지우는 것도 귀찮아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자연인의 상태로 계속 돌아다녔다. 아주 편했다.

여행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교통편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딱 맞게 오는 배나 시외버스는 편했지만 농어촌버스 같은 마을버스는 우리가 찾아본 시간표의 시간과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 버스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 후 더 긴장이 됐다. 시골이라서 그런지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덕산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다른 조 애들이 일정진행을 할 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서 편했지만 직접 일정진행을 해보니 힘들었다. 일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생각했던 것 보다 잘 안되었던 것도 있었다. 여행 일정이 빡빡하지 않고 나름 널널해서 좋았다. ‘여행이 널널하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서도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이 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것도 많고 꼭 찬 일정에 힘들어 하는 것 보단 쉬면서하는 여행이 더 좋은 것 같다.

낙안읍성 가서 다 같이 긴 줄로 줄넘기랑 줄 돌리는 것을 한 게 기억에 남는다. 멘토반을 시작하고 나서 다 같이 만나고 놀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좀 아쉽기도 했었다. 근데 이번 여행에서 재밌었고 이렇게 다 같이 논게 오랜만 이어서 그런 것 같다. 역시 무빙은 학년끼리 가는 게 제 맛이다. 또 완도네시아 사장님의 강의가 기억에 남는다. 자신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신기했고 꿈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것도 부럽고 그랬다. 그 강의를 듣고 그날은 생각이 좀 많아졌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여자애들 다 같이 수진쌤을 모래에 묻었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재밌었다. 여행 중에 처음으로 바다에서 놀아서 재밌었고 해파리가 많았다. 끝나고 간 목욕탕은 물이 짜서 신기했다. 목욕탕에서 우리보고 운동하는 애들이냐고 물어봤다. 다른 때도 운동하는 애들이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보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여행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은 많지만 제일 크게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백련사 스님이다. 완전 처음 봤을 땐 나름 좋은 인상이었는데 마지막 날 차를 마시며 했던 이야기가 충격적이어서 그런 것 같다. 세탁기는 여자가 편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차 마신 컵들은 여학생 두 명이 가져가서 설거지해라. 처음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했다. 그리고 하저어촌체험마을의 민박집 할머니. 바지락도 해감 해주시고 삶아주신다고 하고 김치도 주시고 진짜 친할머니처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다시 여행을 간다면 덤지 않고 선선한 시기에 가고 싶다. 안 더운 날에 여행을 간다면 걷는 일정도 재밌을 것 같다. 일을 하는 사람만 하지 않도록 소규모로 조를 나눠서 거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장염에 걸렸을 때 ‘괜찮냐?’ 걱정해주고 신경써준 사람들과 밤에 잘 때 공공거리면 ‘괜찮냐?’ 계속 물어봐준 같은방 쓴 애

들이 제일 고마웠다. 볼 때마다 아픈 건 어떠냐고 물어보고 걱정해줘서 고맙고. 처음 무빙을 시작할 땐 귀찮고 가기 싫었고 여행 다닐 땐 집에 가고 싶었는데 갔다 오니까 재밌기도 하고 직접 짠 일정 다 끝내니까 뿌듯하고 편하다. 지금은 내가 이 여행에서 뭘 배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 김마루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6병동 사랑의 집

처음에는 뭔가 어르신들이 찜찜하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엔 활동들이 어려웠는데 여러날 하니깐 쉬어졌다. 그냥 나중에 내 가족에게 해야할 일을 미리 해본 것 같고 처음으로 봉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고 보람찼다. 음식이 매우 맛있었다. 아쉬운 점은 6병동이 치매병동 이어서 어르신들과 얘기하는 순간이 적었고 조는 시간이 많았다. 너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했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여행을 준비한 것은 전 준비를 하지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에 관해서는 전 일정을 보고 매우 좋고 신기한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 중에는 제가 안 해본 것 과 하고 싶은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일정이었던 소록도 일정은 안 해본 '봉사'라는 일정 이였고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해봤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일정에 들어가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소록도는 병원은 도움이 필요해 보였는데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들의 일에서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알찬 활동 이였습니다. 자유여행은 계획했던 것으로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될 것 같았지만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많았고, 버스가 안 오거나 늦게 오는 경우도 많았고, 일정에 있는 것 들 중에 휴관하는 것들도 많아서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행답게 여행하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평소에 제가 먹고 싶었던 해산물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매우 좋았습니다.

3. 청산도+완도/강진+보성/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저희 조 일정이 기억에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안 해본 템플스테이가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 이였고, 일정에 갯벌 일정이 있었는데,

전 갯벌을 좋아했고 갯벌 체험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 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과 그 이유는?

전 (병동에 있던)공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유는 저희 치매병동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배정받은 업무가 휠체어 옮기는 거였다 해도 앞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핸드폰을 계속 하는 것이 매우 보기 싫었고 어떻게 저러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5.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일정, 내용, 마음가짐 등)?

아직 잘 모르겠다. 마음가짐은 좀 더 성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우리 반 모두한테 고맙습니다. 일정 짜서 그거대로 진행하려 노력해 주고, 밥도 맛있게 준비해 주고, 무빙 기간 중에 제가 짜증을 낼 때에도 잘 참아줬기 때문입니다.



# 김담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3병동 믿음의 집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일들에 치여 적응은 뒷전이다. 앞치마를 해드려야 하는지 헷갈렸고 물을 큰 컵으로 드려야 하는지 헷갈렸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대화만 계속하고 싶은 게 본심이지만 더 할지 그만할지를 택하자면 더 하지 않을까.

마지막 오후는 첫날 전체보다 빨랐다. 같이 공연을 보고 대화 몇 마디 나누니 저녁준비가 코앞이다. 여유롭고 싶었지만 무심하게 시간이 흘렀다. 이제야 대화를 한 할머니도 많았다. 처음엔 너무 조심스러웠다. 도리어 방해될까 그랬나보다. 말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러웠는지 작아 잘 안 들리시는데 일부러 대답 안하시는 줄 알고 뭘 잘못 했나 작아지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것 같다. 간호사분들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소록도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걱정됐던 건 4시 기상이었다. 생각보다 눈이 잘 떠졌다. 오히려 더 먼저 3시에 알람도 안 울렸는데 번쩍 떠지는 눈이 나도 신기했다. 생활에 적응되는 순간이 마지막 날이라니 1주일은 너무 짧은 거 같다. 2주라도 해야 내가 같은 병동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라도 다 외울 것인데

그래도 봉사를 하면서 항상 재밌었다. 간단한 질문을 해도 장황한 인생얘기를 늘어 주셔서 생각해냈던 질문에 말도 못했다. 반복되는 봉사활동에서 기계가 되지 않고 잘 버텨준 나와 같이 활동한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항상 잘해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사고 뒷수습과 다양한 꿀팁 알려주시는 간호사분들에게도 큰 감사를 전한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짧다고 느껴졌던 무빙이 막을 내렸다.

‘무빙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처음 느껴진 건 가정학습 일찍 입교했던 날이다. 지금까지는 짜놓아진 일정을 진행했지만 이제 우리가 일정을 짜는 무빙이다 보니 사전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순천을 맡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정이 많이 가는 지역이었다.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인상이 좋아서 그랬던 거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쓸데없는 부분까지 의욕 넘치게 했었던 거 같다. 사실 다른 팀보다 교통이 좋아서 속된말로 개꿀 뽀 것도 있다.

준비할 때는 엄청 힘든 일정이겠구나 싶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유로운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이라 미숙하긴 했지만 여유롭게 짜면 일정이 텅텅 비고, 빈 곳 없이 잡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 일정이 밀리는 문제가 생긴다. 아직까지 나는 해결법을 모르겠다. 그래도 진행을 하면서 이유 없는 뿌듯함이 있었다.

작년 제주도를 예로 들자면 사전조사 없이 여행을 가니까 보는 게 전부인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조금 달랐는데 준비를 하면서 장소에 대한 역사나 기본정보를 알고 가니까 좀 더 자세하게 둘러볼 수 있었고 편리한 것들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을 뽑으려면 본인 팀 일정을 당연히 뽑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나도 같은 케이스인데 단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 같다. 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 같은 것을 보거나 들어도 우리는 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듣는 건 이번 여행에서 꽤나 흥미로웠다. 마지막쯤에 청춘옷장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과 우연찮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어쩌다 대안학교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이 자식을 낳으면 대안학교 보낸다는 말에 신기하기도 했다. 확실히 요즘에는 대안학교가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거 같아 기분 좋게 다음일정을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내년이면 이번보다 훨씬 오랜 기간으로 여행(해외이동학습)을 가게 된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배웠던 거는 사전조사가 여행에 효율에 있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 여행을 이끌어가면서 조사가 안됐던 곳들 중에 잘되었던 거를 못 봤다. 우리 팀 일정 중에 휴무일을 확인하지 못해 갔는데 문이 닫혀있었던 보성여관이 가장 큰 예가 아닐까. 이제 모든 사이트들이 영어로 돼있을 것이라 더욱 힘들꺼라 예상하지만 이번에 입교 일을 당겨 무빙준비를 했던 것처럼 매우 많은 노력을 쏟아야 여행하면서 개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하기 전에 본인이 이번 여행에서 어떠한 배움을 얻을 것인지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거 같다. 나는 이번 여행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을 걸어가며 시간을 보냈던 거 같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아 무빙을 끝내면서 기분이 좋았었다. 그래서 내년 무빙을 시작할 때도 목표라든지 마음이 짐정도는 정하고 떠날 예정이다.

마무리 하면서 유익한 상점 대표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해주신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크게 자리 잡았고 유익한 상점 대표님은 내 미래에 꿈을 심어주신 거 같다. 여러 곳에서 물건을 가지고와 파는 것도 멋졌고 그 물건들이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멋졌다. 나도 나중에 그런 곳을 운영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 무빙이라든지 인턴쉽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여행에서 고민을 조금 덜어낸 거 같다.

끝으로 부족한 점들 채워주시고 뒤에서 고생하시면서 밀어주신 정호쌤과 수진쌤께 감사를 전하고 부족한 가이드였지만 잘 따라와 준 우리 반과 여행을 하며 지나쳤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계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영달 봉사자님도 감사드립니다.



# 이별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3병동 믿음의 집

처음에 올 때는 설레기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내가 막 '1시에 간식드리고 5시, 10시, 3시에 물 드리기 앞치마를 해 드릴 수 있을지 진짜 걱정 많이 했다. OT를 듣고 할머니들이랑 잘 지낼 수도 있을까?' 라고 걱정도 진짜 많이 했다. (걱정만 늘어놓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들이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착하시고 잘 해주셔서 쉽게 말도 걸고 좀 더 쉽게 적응한 것 같다. 처음에는 너무 어리바리 해가지고 죄송했다.

지금 벌써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이 들어버린 게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프다. 내일 떠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있다. 그래도 올 것 같다. 본론으로 와서 좋았던 점을 말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 간호사분들께 꾸중을 들어도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어주시면 세상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다. 진짜 힐링이 됐다.

힘도 받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진짜 재미있었다. 음. 막.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뭘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실 때 진짜 슬퍼서 조금 울긴 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좋았다.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나에게 좋기도 엄청 좋았다. 너무 많은 것을 얻고 가서 너무 많은 것이 좋아서 뭐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긴 했는데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진짜!!!! 그리고 밥이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녹는 기분이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난다.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들어서 더 있고 싶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밥 해주시는 분들도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고 고생하신 간호사 분들도 감사해요.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하는데도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다. 일단 여행을 기획하며 제일 짜증나고 힘들었던 것은 차 시간이었다. 우리 팀이 일정을 짜 놓으면 시골이라 차가 얼마 다니지 않아 일정을 갈아엎은 것

이 제일 짜증도 나고 힘들었다. 그리고 일정을 짜면서 과연 우리가 짠 계획으로 여행을 할 수는 있을까도 의문 아닌 의문이 들었던 것 같다.

내가 우리 조에서 한 일은 주로 전화를 하는 거였다. 처음에 전화를 할 때는 까이면 어떡하지? 내가 말을 못해서 숙박비가 더 비싸지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계속 전화를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전화를 할수록 나는 '배째'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하니 마음이 편해졌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착하신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훨씬 많았다. 그것도 나름 마지막에 갈수로 편하게 전화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기대는 소록도 말고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갔다. 그냥 걱정만 되었던 것 같다. 실제로 여행은 소록도부터 말하자면 소록도는 처음 무빙이 시작할 때여서 그런지 아무 생각이 없이 갔다. 실제로 해보니 하루가 너어어어어어어무 길었다.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잔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간호사 분들을 존경하면서 바라보게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동네 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았다. 어째보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더 따뜻하시고 웃음도 많으시고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 병동 봉사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얘기하면서 지내는 노곤한? 하루가 나는 너무 좋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얘기와 하모니카도 들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장난도 치고 어떨 때는 여러 조언도 받으면서 내가 병동 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았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다시보고 싶어지는 믿음의 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얼마 전에 믿음의 집에 계시던 원숙이모가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날 하루는 너무 슬펐던 것 같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기는 하지만... 그래서 좋은 세상에서 사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소록도에서 나와서 청산도 일정은 일단 청산도 팀이 해주는 밥도 맛있기는 했지만 청산도에서 먹은 회, 전복회, 백반 등이 너무 맛있었다. '역시 전라도 사람들은 음식을 잘 하는 군'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다. 청산도 일정은 범바위를 간 것이 좋았다. 갈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막상 올라가서 범바위를 보고 사진을 찍고 도시락을 먹으니까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마침 그때 안개도 끼서 그런 걸 수도... 멤버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ㅋㅋ

청산도팀 일정에서 또 좋았던 것은 완도네시아를 간 것이었다. 완도네시아의 숙소도 너무 좋았는데 거기 사장님?? 강의를 듣는데 '나도 한번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한 아주 멋진 강의이었다. 또 워킹홀리데이 라는 것과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들은 강의 중에 인상 깊은 몇 안 되는 강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강진, 보성에서 한 템플스테이와 바지락 캐기는 내가 가져고는 했지만 선택 미

스였다... 그래도 마지막에 바다는 끝내 주었다. 바다를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물 안에서 애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아무생각 없이 모래에 깊숙이 묻혀도 보고 바다에도 뛰어 댕기고 갯벌에 빠져가면서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놀았다. 그런데 바닷물이 따듯하고 해파리가 너무 많이 나온 게 아쉽기는 했지만...

순천팀은 소~울직히 보성여관 간다고 할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그 땡별을 걸어서 힘들게 갔건만 정작 보성여관이 닫혀 있어서 진짜 짜증났다. 딱 그때 지갑도 잃어버려서 더 짜증이 난 것 같았다. 그 다음간 기적의 도서관은 내가 어릴 때 읽었던 책과 내가 좋아하던 책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추억이 돋았다.

그래도 순천팀의 가장 좋았던 건 마지막 일정이었다. 청춘창고를 갔는데 신세계였다. 진짜 모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심지어 내가 즐겨 먹지 않는 햄버거도 2,900원인가? 에 팔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맛있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은 건 라멘이랑 사케동이였다. 라멘은 어떻게 그렇게 맛있을 수 있고 연어는 어떻게 그렇게 사르르 녹을까 정말 맛있었다. 또 그 다음에 간 유익한 상점은 그 한옥에 상점이라니까 너무 멋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더 세웠다. 나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이담이랑 아이템을 구상해서 서울 한옥에 저런 상점을 열어보자 생각도하고ㅋㅋ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여행지에서 만난사람 중 인상에 깊었던 사람은 아무래도 완도네시아의 사장님이었던 것 같다.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시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일정은 그냥 대충 어디로 갈지 거기에 뭐가 맛있는지 뭐가 유명한지만 알아두고 무계획이고 진짜 힘들 때 힐링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가는 여행을 해보고 싶다. 언젠가는 한번

움직이는 학교 중 가장 고마운 사람들은 소록도 할머니 할아버지이었던 것 같다. 내가 엄청 버벅 거렸는데 막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셨던 것 같다. 그리고 할머니 옛날얘기를 들으면서 또는 할머니와 수다를 떨면서 내가 더 즐거웠던 것 같다. 거기서 춤도 댄는데 진짜 쪽팔린 것도 모르고 했었다... 그리고 소록도에서 하루의 낙이 할머니가 진짜 해맑게 웃어주시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 불러주시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할 때 마다 행복해서 그것을 하루의 낙으로 살았다.ㅋㅋ 그리고 우리반애들도 모두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수고했어. 호호호오ㅠ 끝



# 정원

소록도 봉사활동 / 3병동 믿음의 집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기부같이 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별로 그런 건 들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처음에 봉사 장소를 정할 때 사랑 병동은 힘이 많이 든다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어색한 느낌도이 들었다. 둘 째 날까지 적응 안 되었는데 점점 재미도 있어졌다. 지금까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과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재미있었고 끝나도 아쉬울 것 같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빙을 준비할 때 그렇게 열심히 참여를 안했던 것 같다. 순천에서 갈 곳을 찾아보고 조사하기는 했지만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운 느낌이 든다. 사실 별 생각 없이 소록도에 갔다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때그때 느낌만 느꼈다.

## 2. 실제로는 어땠나?

자유여행을 하기 전에는 엄청 쉴 틈 없이 뻘뻘하고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았다. 그런데 소록도 봉사활동을 마치고 자유여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일정이 뻘뻘하지 않았고 청산도 일정을 할 때는 쉬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었다. 몇 번 오래 걸었던 적도 있었지만 많이 쉬었던 것 같다.

## 3. 청산도/완도, 강진/보성, 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기억에 남는 일정은 강진에서의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강진에서 오랜만에 했던 농구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템플스테이는 밤에 두드러기가 나서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자꾸 생각나는 것 같다. 그냥 여러 가지 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19일 날 저녁에 무한리필 고기 집에 가서 오랜만에 마음껏 고기를 먹었던 게 기억난다.

##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일이라 생각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해설사분이 기억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어찌다보니까 계획에 없던 해설을 듣게 됐는데 솔직히 별로 집중해서 듣지는 않았다. 가끔 들으면 진짜가 의문이 드는 뇌피셜과 혼자 말하고 혼자 웃으시는 것을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다. 듣는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려는 의도는 알았지만 너무 썰렁해서 갑분싸 된 것 같다. 왠지 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5.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갈 곳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보성여관에 갔을 때 월요일에 휴무라는 것을 알아보지 않아서 그 날 일정에 큰 혼란이 있었고, 우리팀도 많이 당황했었다.

6. 무빙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는?

이번 무빙을 하면서 고마운 사람은 무빙을 하면서 즐거웠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 모두가 고맙다. 특히 농구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이 좀 더 고마운 것 같다.



# 김한별

소록동 봉사활동 소감문 / 6병동 사랑의 집

봉사활동은 힘들지 않았지만 간호사님들의 화 아닌 화 같은 잔소리를 듣는 게 매우 힘들었다. 간호사님들이 일을 시키셨고 시키신 일을 하는 법을 몰라서 멍뚱뚱 있으면 왜 일 안하냐고 잔소리 하신다. 그 잔소리가 싫은 이유는 간호사님들이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잔소리를 하셔서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안았다. 그래도 봉사활동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힘들기도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나라면 계속 나라면 계속 병원에 못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병동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을지 궁금했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나는 여행 전 일정을 짜는 것이나 어디 갈 건지 어떤 활동을 할지 정하고 계획 할 때 내가 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나마 내가 준비한 게 자료집에 들어갈 글과 사진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그리 잘된 것 같지 않다.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2학년과 3학년 무빙이 재미있었지만 좀 힘든 무빙으로 기억되어서인지 집에서 출발할 때는 무빙을 기대하지 않았다. 소록도활동이 싫었던 건 아니지만 소록도에 갔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후회만 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무빙활동 했는데 조금 후회가 남는다. 소록도에서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자유여행 할 때 너무 힘 빼고 다닐 때 그러지 않았다면, 순천에서 친구들과 인솔이나 활동하는 것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런 후회가 남는다.

3. 청산도+완도/ 강진+보성/ 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완도에서 강의를 들었던 게 이번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완도네시아 라는 곳에서 그곳 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마음에 들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사장님이 여행 얘기를 하셨을 때 사장님이 부러웠다. 나도 여러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어와 수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도움 될 만한 얘기나 좋은 얘기

들 많이 해주셔서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다.

####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기억나는 사람이 세 명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완도네시아의 사장님이고 두 번째 사람은 소록도에서 만난 권순혁 이라는 분이다. 세 번째는 그냥 기차 타다가 본 모르는 사람이다.

먼저 완도네시아의 사장님이 기억난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하고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것을 강의하실 때 많이 말해주신 것 같아서 이다. 강의를 하실 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다고 하셨을 때 나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공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영어공부와 다른 수학이나 그런 것들도 공부해보려 한다. 또 강의 해주실 때 커피에 대해서는 유용한 팁 같은걸 못들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여행에 대해서는 새롭고 유용한 팁 같은걸 알게 돼서 좋았다.

두 번째 사람은 권순혁이라는 분인데 소록도 6병동에서 만났다. 처음 보고 인사를 하는데 말투가 뭔가 외국인(편견인가 그렇다면 잘못했습니다.)인 것 같아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왔다고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다 그분이랑 얘기를 많이 안하다가 마지막 날이 쯤에 그분이랑 얘기를 조금했는데 생각보다 얘기하는 게 재미있었다. 그래서 서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은 의외로 재미있는 거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냥 기차 타다가 슬쩍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담이랑 외모가 너무 비슷해서 처음 봤을 땐 담이가 왜 용산가는 기차 에 타고 있나 싶었다.

#### 5.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여행을 간다고 하면 내가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순천팀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다음번에 다시여행을 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갈 때는 후회만 하지 않을 정도로 무빙을 임할 것이다. 마음가짐 또한 그렇게 가져야겠다.

####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딱히 없지만 정호 쌤이 joy의 뜻을 가르쳐줘서 고마웠다.

# 임다운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5병동 소망의 집

한센병이라는 병과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섬에 몰아 살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설명을 듣고 직접 와본 건 처음이었다.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모르게 놀라거나 피하게 되면 어찌지?’ 하는 걱정과 또 한편에선 기대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 처음 본 병동은 엄청 쾌적했다. 살짝 요양병원 같은 느낌도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가가과 만난 후는 달랐다. 조금 다른 겉모습에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고 한 병실에 앉아 심심하실 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은 좀 어색했다. 처음 만남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런 부담감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 좀 힘들었다. 이튿날은 다른 병동으로 갔다. 전 병동과 비슷했다. 하루하루 지나갈 수 수록 한 분 한 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다. 중간 중간 대화를 하던 중들은 말에 울컥하는 말이 많았다. 과거이야기나 현재 힘든 점을 이야기 할 때 피곤했던 하루하루는 빠르게 지나갔다. 신선한 경험이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 임다운

16박 17일. 길고도 짧았던 무빙이 끝났다. 무빙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서 영원히 안 끝날 줄 알았다. 하루는 길었지만 17일은 짧았다. 그래서 아직도 무빙을 마치고 집에서 텅굴 거리고 있는 내가 이상하다. 보고서를 가장 늦게 제출하는 사람이 편집을 하기로 했는데 채팅방을 보니 나 빼고 다 낸 것 같아서 조급한 마음으로 쓴다.

나는 직접 기획하는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배낭하나 매고 떠난 여행 길. 시골버스 멈추는 곳이 나의 여행지고 내 발이 닿는 곳이 곳 길이 되는 여행, 낙천적인 임다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떠나는 낭만 등등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처음 친구들과는 기획해보는 여행은 정말 힘들었다. 다니는 버스하나 모르는 생소한 지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신경을 쏟게 만들었다. 무빙가기 일주일 전엔 전산실에 살았다. 끊임없이 클릭했고 길찾기를 돌렸다. 내 정신상태도 함께 돌아가는 듯 했다. 우리조는 총 6명이었다. 6명이 나 있었는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않는 친구들 덕에 나는 더 많은 클릭을 했

다. 알아봐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옆에서 게임을 하거나 신경도 쓰지 않는 몇몇 조원들에게 화가 났다. 이러한 준비과정 때문에 이번여행에 대한로망은 와장창 무참히 깨져버렸고 기대감도 더욱 하락했다. 다른 조의 일정을 대충 들어봤을 때 꽤 흥미로운 일정이 있어 기대까지는 아니고 조금 궁금했다. 어떻게 꾸렸는지.

첫 일정으로 청산도에 도착했다. 무사히 찾아온 것만으로도 반은 한 것 같았다. 일정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책임지고 인솔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다. 산만한 우리 반 친구들의 집중력은 매우 낮았다. 청산도에서 주요활동은 슬로길 걷기였다. 길을 못 찾아가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다. 손 지도를 보거나 골목사이 표지판을 찾아 걸었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애들도 잘 따라와 줬다. 길은 예뻐는데 중간에 비가 와서 짹짹하고 다리가 아파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다. 슬로길은 서편제라는 영화 촬영지로 유명하다. 서편제를 비롯해 00촬영지로 표시된 곳이 여럿 있었다. 너무 촬영지를 중심으로 꾸며 놓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역시 사람의 손이 닿은 자연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 가보지 못한 다른 코스들도 여유를 두고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다. 가족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일정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밥하기였다. 밥솥은 너무 작고 친구들은 너무 많이 먹었다. 정말 배에 블랙홀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 다음 조가 진행할 땐 밥을 엄청 많이 먹어야지 했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 했다. 다시 한 번 식당상생님들께 감사함을 느꼈다. 청산도에서 나왔을 땐 정말 기뻐다. 섬에서 살아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더 이상 설명과 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해졌다. 다음 일정이 진행되었다. 역시 따라다니는 게 편하긴 했다. 하지만 내가 기획한 게 아니라서 더 그런지 귀찮고 왜 하는지 모를 일정도 몇 개 있었다. 불만이었지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다. 어떻게 머리를 짜내서 일정에 끼워 넣는지 알고 있으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만 계속 났다. 이번 무빙은 전체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딱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 나를 포함해 다른 친구들도 이동하는 지역이나 주변시설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중간중간 너무 방황했고 전체 일정들이 너무 두서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많이 아쉬운 무빙이지만 모두 안전하게 즐거운 추억을 쌓고 온 것으로도 만족한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순천이다. 순천 일정이 좋았던 건 아닌데 갔던 공간들이 다 예뻐다. 개중 유익한 상점은 집에 와서 다시 찾아볼 정도로 좋았다. 이곳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의미와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편집샵이다. 알고 있던 브랜드들도 있어서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만든 공간은 살아본 적도 없는 시골집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 아기자기하고 의미있는 물건들로 꾸며져 있어 찬찬히 둘러보는 재미도 있었다. 매

달 열린다는 유익한 마켓에도 꼭 가보고 싶다. 멋진 공간을 개조해서 더 멋진 생각을 갖고 상점을 운영하시는 모습이 멋있기도 부럽기도 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곳은 하저어촌체험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바지락 캐기 체험을 했었다. 나는 바지락을 먹지도 안으면서 엄청 열심히 했다. 7,000원이나 내고 들어온 체험장에서 낸 만큼은 캐야지 하고 생각했다. 뜨거운 태양아래 계속 쭈그러 앉아 바지락은 캐다 내 한계점을 느꼈다. 머리는 뜨겁고 손은 다 붙어 가는데도 시간이 다 안 채워져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무빙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을 꼽으라면 두 사람이 떠오른다. 첫 번째로는 완도네시아 사장님. 내가 옥천에 살면서 엄마랑 이야기 하며 그린 미래가 딱 완도네시아였다.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소년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 나는 커서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나누며 살고 싶다. 여기 사장님이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았다.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감탄하고 감탄했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 안에서 더 큰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멋있었다. 확고한 목표를 위해 과감히 일을 그만두는 패기도 말이다. 사장님 생각도 바르시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것 같았다. 완도네시아에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니 나중에 커서 이곳에 취직해도 좋을 것 같다.(ㅎㅎㅎ)

다음으로는 울포 해변 앞 마트에서 만난 아저씨였다. 우리가 해변 썰물시간에 들어가서 벌에서 놀았다. 그렇다 보니 온 몸이 벌 범벅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해변 옆 작은 수돗가에선 수습이 불가능해서 그냥 그 채로 걸어갔다. 길을 가다가 마트 앞에 아저씨가 앉아 계셔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경악하시면서 “못 볼 얼굴 못 볼 얼굴”이라고 소리 치셨다. 너무 당황해서 눈만 껌뻍이고 있었다. 그래도 내 얼굴이 못 볼 얼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딘가 조금 불편하신 분 이셨던 것 같다. 덕분에 신박한 일화를 얻었다.

만약, 정말 만약, 다시 여행을 가야한다고 하면 먼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다. 여러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자료를 모으는 일이 너무 어렵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간다면 지금보다는 수월 할 것 같다. 적어도 한번 이상의 경험은 쌓였으니까. 그리고 무엇이든 시작할 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 한들 내가 하기 싫으면 그건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모두가 의욕 넘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될 것 이다.

움직이는 학교 기간 동안 가장 고생하셨을 것 같은 선생님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지나치게 새하얀 우리 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엄청난 기운을 쏟아야 했을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건네주셨던 것 같다. 누구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귀여운 방가반가 친구들. 잦은 편잔과 갈등에도 굴하지 않고 무빙을 마친 기특한 임다운. 16박 17일의 시간동안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짹짹





# 박우제

소록도 봉사활동 소감문 / 2병동 행복의 집

거의 모든 것이 새로웠다. 왜냐면 나는 이런 봉사활동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노인정에 가서 주물주물 안마해드리는 것은 해봤지만 병동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거의 모든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멀리 와본 것도 오랜만이었다.(소록도 거의 땅끝마을 해남 간 기분) 어쨌든 병동 봉사가 시작되고 첫 시간부터 인사하러 다니고, 물 떠다드리고, 밥 떠먹여 드리고 처음 해보는 일들의 연속이었을 뿐더러 어르신들도 그리 달갑지 않게 해주셨다. 일단 그냥 다가가서 (봉사)했는데 그게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다.

첫 날은 어리바리하게 있었다. 간호조무사분이 음식을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방도, 어르신들도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 방향했었다.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첫날이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생각 외로 물 흐르듯 지나갔다. 나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일을 쉽게 하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연호 할아버지와 장기 둔 날은 조금 특별했다. 어르신들이랑 친해지지 못했는데 장기를 두며 처음으로 친해진 어르신이 생긴 것이었다. 물론 중간에 간호조무사분이 시끄럽다고 해서 중단되긴 했지만, 연호 할아버지는 나를 장기친구라고 불러 주신다. 기분이 좋았다. 내일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판 두고 가야겠다. 급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행복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움직이는 학교 소감문 - 박우제

## 1. 여행을 준비했던 과정과 기대는 무엇?

난 이번 여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썼었지만 학교에선 무빙 말고도 신경써줘야 할 일이 무척 많았다. (예를 들면 일상다반사라든지..) 그래서 무빙 준비도 친구들과 이정도면 되겠지 하고 일단 넘겼었다.(다행히(?) 애들도 다른 것에 정신 팔렸고 서로서로 관리를 안 해서 내가 잘 안한 것을 몰랐다.) 그 덕분에 보성여관이 일정에서 빠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지금 와선 후회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좀만 더 잘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난 딱히 여행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여행이 좋고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탈출하는 무빙이 좋았던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여유를 기대

했나?’ 싶다. 결론 여행 관심없었..

## 2. 여행, 실제로는 어땠나?

난 여행에 목표를 이루었다. 휴-식. 특히 초중반 일정이 상당히 많이 쉬었던 거 같다. 소록도에서는 ‘일하고(새벽수발), 먹고(아침식사), 자고(휴식), 모이고(아침열기), 일하고(오전수발), 먹고(점심식사), 자고(휴식), 일하고(오후수발1), 놀고(오후수발 중에 시간 남아서 나가서 놀았다.), 일하고(오후수발2), 먹고(저녁식사), 배우고(소록도에서 프로그램), 모이고(하루나누기), 자고(취침)’가 하루에 전부였었고 봉사 시간에도 그리 많은 일을 하지 않을뿐더러 밥이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게 살폈다.

그 다음 일정인 청산도로 향했다.. 첫날 다들 지쳤는지 숙소에서 만나절을 쉬었다. 원래는 4인방이었지만 7명이 잤기 때문에 너무 좁았지만 잠은 잘 잤다. 청산도에서 첫 번째 일정 슬로길 걷기. 딱히 재미없었다. 그 다음날 일정이 바다를 가는 거였는데 날씨 때문에 조별로 슬로길 걷기를 했다. 못가서 아쉬웠지만 2번째 슬로길 걷기는 남탕 헬파티<sup>2)</sup>조 답게 그냥 즐겁게 진행 했던 거 같다.

청산도팀을 칭찬하고 싶은 점은 밥. 연지네 이모할머니께서 도움을 준 것이 컸다. 회부터 해삼, 멍게, 성게 전복 등 섬에서 이런 건 못 먹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먹었다. 그다음 완도에서는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있다. 바로 완도 타워 밑 달동네, 왜냐면 우리가 그 동네를 헤매었기 때문이다. (이건 이야기 하고 싶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 우리는 권태윤에 핸드폰 지도를 보고 완도 타워를 향해 걷고 있었는데 앞에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완도타워 표지판이 있었다. ‘내가 표지판 저기 있다.’ 라고 말했고 그쪽으로 향했는데 막다른 길에 학교가 있었고 근처 어르신한테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었더니 여기 아니라고 저쪽이라고 가르쳐준 방향으로 무작정 걸어보니 달동네이었고 이래저래 헤매다가 달동네가 위치한 언덕을 넘어서 겨우 길을 찾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다. 어쨌든 보리밥 맛있게 2번 인가 리필해서 먹고 완도네시아 숙소 사장님이신 김영아님 강의까지 들으니 잠이 솔솔와서 잘 잤던 거 같다. 그렇게 섬팀 일정이 끝났고. 강진, 보성팀 일정을 하기 위해 우리는 절로 향했다.

템플스테이를 처음 해보는데 안 좋았다. 딱 원장스님에 차담을 들은 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세탁기는 여자가 편리해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설거지는 여자가 하자’ 등 좀 기분이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 연우가 템플스테이 소감문에 “페미니즘 좀 배우세요.” 라고 쓰자 속이 시원했다. 하나 좋았던 건 가우도에서 명상한 것이다. 시원한 바람이 옆구리를 스쳐가는 느낌 아직도 기억난다. 지금 너무 더운

---

2) 헬 + 파티 합성어. 상황이나 맥락이 매우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움을 이르는 신조어.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나 물건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거나 매우 혼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 주로 사용한다.

데 거기가고 싶다. 그 다음 일정 하자 어촌 체험 마을에서 바지락 체험을 하는 것이었는데 바지락 캐기 체험은 딱히 재미없었고 숙소가 더 좋았다. 옥탑방이 운치 좋은 곳에서 있었는데 경치가 탁 트여 있어서 시원했고 잡은 바지락으로 만든 바지락 탕도 시원했다. 그리고 어느새 강진, 보성팀 마지막 일정이 가다왔다.

아... 난 이번에 '남도 왔는데 바다에 못 뛰어드나'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정이 2틀 연속 바다에만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틀 연속 바다 들어갔다가 농구했다가 다시 바다에 들어가고 다시 농구하고를 했는데 꿀 같은 일정이었고 너무 좋았다. 첫날은 바다가 썰물이어서 바다보다 농구를 더 많이 했다. 추가로 갯벌에서 태훈이 신발 찾는 걸 도와줬다. 갯벌에는 사람이 많은 바다였지만 물고기며 게며 조개며 별거 다 있었다. (게는 마루가 학살했다.) 둘째 날은 만조에서 놀아서 너무 행복한 바다였다. 바다에서 시원하게 놀고 농구하러가고 더우니깐 다시 바다 와서 다시 풍덩 빠지고 공동체놀이(이런 걸 티내고 싶진 않지만 ㅎㅎ)1등하고 짠 네를 씻어 네고 좋았다. (애네 이번 일정 아니었음 별점 엄청 떨어졌을 텐데)

그리고 대망에 마지막 일정. 남탕 조 일정이 시작되었다. 별일 있겠어? 라고 시작했던 우리에게 일정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딱 숙소에서 들어가서 맛있게 짜장면을 흡입하고 낙안읍성에서 아~주 정말 즐겁게 놀 때 까진 잘 몰랐다. 논 다음 그냥 애들 의견 없이 꼬막정식으로 통일 할 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때 몰랐고 즐거웠을 뿐. 그 후 내일 아침과 저녁 간식을 장보고 숙소로 돌아가서 쉬고 있는데 아뽤싸 오우진이 갑자기 속이 안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나누기가 시작되었고 오우진이 난리 났었다.

그 후 빤이 사라졌고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폭 가라앉았다. 이걸 여담인데 오우진이 새벽에 들어오더니 위염이라더라. 정말 Legend of Legends였던 그 다음날. 시작만 좋았던 날이었다. 이날에 아침 샌드위치 애들이 참 잘해주었다. 맛있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숙소 앞에서 버스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낙안 정류소까지 걸어서 이동했는데 거기서도 기분 좋게 버스 한 대를 더 놓쳐버렸다. 이런 건 원래 별거 아니었긴 하지만 대형사고가 났다. 보성여관에 휴관일이 있었던 것이다. 철저히는 모르겠고 기본적인 것도 놓쳐 버린 우리에게 실패가 들어났으니 어찌겠냐. 디지게 혼났지...

그 후 기적의 도서관을 갔는데 사라져버린 일정을 채워주진 못했다. 그리고 숙소에 갔고 뭐 그냥 한국축구보고 자지 못하고 다시 내일은 조금이나마 잘 돌아가기 위해 12시까지 회의 했다. 후... 그 다음 날 빵구 안 내려고 고생한 이번 일정을 순탄하게 잘 돌아갔다. (물론 하정민이 아프긴 했지만 그리 심한 건 아니었으니 패스) 첫 번째 일정 순천만 국가 정원 애들 마다 좋았거나 안 좋았거나 조금씩 나뉘었지만, 어쨌든 괜찮았고 이 후 청춘창고 어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유익한 상점 강의, 유익한 강의였다. 어떤 측면에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옷장은 가진 갔는데 옷장이 망했다.. 1점포 빼고는 전부 빠져있었던 것이 충격이었다. 여기서 느낀 건 '시설 좋고 물건 좋으면 뭐하나 사람이 안 오면 쓸모가 없구나.'를 느낀 장소였다. 그리고 여행 총정리를 끝내고 대망에 마지막 날 고기 파뤼 맛있게 잘 하고 잠에 들었다. 아.. 오늘은 대망에 마지막 날이었고 산뜻하게 모든 짐을 가방 안에 쑤셔 박고 하루를 시작했다. 이날은 순천만 습지에 갔고 아무 탈 없이 갔다. 그냥 갈대밭 차체가 힐링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 순천역으로 갔다. 후 드디어 끝났다. 물론 이 글에 주제는 벗어난지 오래 되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번 여행 정말 편히 쉬고 간 여행이었다. 마무리.

3. 청산도+완도/ 강진+보성/ 순천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정과 그 이유는?

먹을 때. 난 잘 못 먹는 것들이 있다. 특히 해조류, 어류 등 비위가 약해 비린 것들을 잘 못 먹는다. (후) 그러나 이번 여행. 남도 그것도 전부 바닷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 음식에 도전했다. 처음 먹은 것은 청산도에서 해삼, 멍게, 성게 나는 처음 회 빼고 처음 접해보는 음식이었다. 멍게는 조금 비려서 힘들었는데 해삼은 씹는 맛이 좋았고, 성게는 그럭저럭 먹을 만했다. 두 번째는 바지락 탕. 난 칼국수 중에 바지락 칼국수를 안 먹는다. 조개를 잘 안 먹기 때문인데 바지락 탕은 시원 시원 했던 거 같다. 3번째는 꼬막 정식 꼬막은 입에 대보지도 않았다. 이번에 처음 먹어봤다. 조금은 씹쓸하면서 달달했던 거 같다. 꼬막 그렇게 입에 맞지 않을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 뭐 질문에 주제가 하나만 고르라는 것이니 최고로 맛있었던 것을 고르자면 해삼! 해삼 독특한 맛있었다.

4.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누구고 그 이유는?

갯벌체험 할 때 내 옆에서 바지락 캐신 아주머니. 난 요만큼 잡았는데 거의 4배를 잡고 계셔서 당황함.

5. 다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일정, 내용, 마음가짐 등)?

소록도 출발은 일단 굳, 그리고 어... 도시보다는 시골이 뭔가 더 좋을 듯. 그리고 섬 난 좋았어요. 마음가짐은 계획부터 잘 하자가 되었으면ㄷ

6.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가장 고마운 사람과 그 이유

우리 모두? 우리가 아니었음 이렇게 재미있는 여행이 안됐을 꺼다.

# 무빙 하루나누기 모음

6/4 월 1일차

정호쌤: 피곤한 하루였다. 소록도에 봉사하러 온지 7번째고, 아는 얼굴 있어서 인사하고 좋았다.

수진쌤: 청소를 했고, 출발할 때 잠이 너무 왔다. 피곤하다.

연우: 처음 분위기는 무겁고 그랬지만, 티비도 보고 간단한 일만하니 좋았다.

태훈: 일찍부터 준비해서 피곤했지만 막상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대하기 어렵지 않았다.

마루: 어제부터 출발해서 오늘 봉사 해보니 생각보다 쉬웠다.

우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 피우기가 싫다.

원: 차타고 오는데 분위기가... 좀 그랭다. 오늘은 딱히 한 일이 없었다.

강: 계속 주변의 신경을 쓰고 눈치보고 하는 게 힘들었다.

한별: 처음 와서 소통도 안 되고 힘들었다.

우제: 웅알겨려서 잘 못 들었지만 힘들었고 피곤했다.

다은: 생각보다 일 안하고 놀았다. 봉사하면서 웃고 있느라 힘들었다.

수정: 적응하기 힘들다. 하는 일이 없다. 앞으로 힘들 것 같다.

연지: 생각보다 꿀잤

정민: 가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수민: 낮설고, 성격상 잘 놀아드리지 못하겠다. 정신 적으로 힘들었다.

후조쌤: 많이 변화되었다.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알았다. 좋은 환경에서 잘 계시는 듯하다. 전보다 좋아졌고, 변화되었다. 구석구석 가보면서 좋은 경험이였다.

명주: 처음엔 앉아 있었지만 나중에 물드리는 것과 식사하는 것도 도와드렸다. 그 러는 중 어르신들과 뽀뽀했다.

봄: 생각보다 좋았다.

담: 마을 봉사를 했고, 이장님 따라서 마을 청소를 했다. 재밌게 여유 있게 해서 좋았다.

태윤: 청소했고, 마을 분들 만날 때 밝으셨다. 오늘은 재미있었다.

6/5 화 2일차

강: 다래끼가 났다. 장기를 저서 아쉬웠다.

정민: 친해지고 싶었지만, 아쉬웠다.

수민: 일찍 일어나는 게 피곤했고, 박물관에 다녀왔다.

봄: 피곤하고, 힘들었다. 조금은 익숙해졌다.

수정: 쉬고 나서가 힘들었다. 그래도 친해진 것 같아 좋았다.

명주: 오늘 하루가 피곤하지 않았고, 분위기도 편해졌다.

연지: 수발드느라 힘들었다. 웃는 할머니 모습이 좋았다.

다운: 다른 곳에서 일했다. 익숙해진 듯하다. 마지막 날에 슬플 것 같다.

마루: 피곤하고, 재미있었다.

우진: 말 안 해서 편했다.

연우: 피곤하고, 졸렸다.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우제: 할머니, 할아버지 선거하시는 걸 봤다. 하루 종일 수발을 들었다.

한별: 어려웠지만, 적응되는 것 같기도, 그래도 어려웠다.

태윤: 전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다. 뭔가 한 일이 많았다.

담: 말을 거는 분들마다 뉴스나 개그코드가 비슷해서 재미있었다.

원: 어..그러게요 생일 빵인가봐요. 기당인데 마지막에 일어났고, 다른 병동은 어르신들과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치매 병동이라 대화하기 불편함)

정호쌤: 잘 일어나서 신기했다. 어르신께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어르신끼리 신경전이 있다.

후조쌤: 전엔 일을 많이 했던 봉사를 했지만, 이번엔 우리가 먹는 기본 적인 것들을 했다. 잘 일어나고, 식사 수발도 잘 들어준 애들이 고마웠다.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잘해주어 감동을 받았다.

수진쌤: 수고했고, 못하겠다는 애들이 없어서 좋았다. 박수!



6/6 수 3일차

마루: 어제와 같음

태윤: 행복의 집에 감. 탁 트여있어서 편안함, 목욕을 해드려야 하는데 다른 봉사자가 해줌. 몇몇 분들이 말 걸어줌

원: 많이 안 힘들었다. 장기를 두었고, 악수만 했다.

수정: 어제와 비슷했고, 너무 피곤했다. 수술 장갑을 꺼서 기분이 좋았고, 산책해서 좋았어요.

연지: 100세 할머니하고 얘기를 나누었고, 할머니 간식을 챙겨드렸다. 할머니들이 애국가를 부르셔서 많이 귀여웠다.

수민: 오늘 힘들. 쉬는 시간 마다 매점에 감. 아주 조금 친해진 듯

강: 사랑의 집 삭막했다. 다른 봉사자 분들, 간호사도 삭막함. 내 몸을 못 움직일 때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의 인생에 감사하다.

수진쌤: 우리 병동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조용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려는 찰나에 쫓겨났다. 시설은 좋은데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분위기가 안 잡힘. 아쉬웠다. 한 간호사가 아이들 칭찬을 함. 학교 이미지도 세워 줌.

후조쌤: 오늘 많은 곳을 다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남.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함.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세월의 무색함을 느낌. 이곳에서의 어르신들의 삶. 스스로 겸손해지는 시간, 3일이 가장 힘든 날. 친구들의 표정은 밝다. 밖에서 활동을 하면 간디의 힘을 느낀다. 박수를 보낸다.

정민: 처음으로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눴다.

우진: 치매병동으로 가봤다. 힘들었다.

태훈: 여유가 있어서 박물관을 다녀왔다. 몰랐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급하게 봤던 터라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다. 어제 보다 어르신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별: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다. 전 보단 덜 힘들다.

명주: 심부름을 했고, 매점에 다녀왔다. 3층에 가서 할아버지하고 운동을 했다. 체력부족 할아버지

정호쌤: 선생님들과 신생리, 신성교회에 다녀옴. 참길회의 위대함을 보았다. 믿음 병동에 하모니카 합주단하셨을 때 알려주신 선생님 번호를 궁금해 하셨다. 알려드리고 전화연결을 했다. 뿌듯함을 느꼈다. 아이들에게 고마움. 그리고 오늘 실수를 해서 간호사의 언짢은 눈빛의 느낌을 받았다.

우제: 기상을 할 때 마다 힘들었다. 누가 어디에 계신지 외웠다. 할아버지랑 장기를 두었다. 중앙공원도 다녀왔다.

연우: 슬펐다.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될까봐. 먼 미래지만

담: 할아버지 네 분을 씻겨드렸다. 의미가 가득해서 좋았다. 오후가 비어서 다은이

덕에 꿀잼. 내일도 열심히!

봄: 붙어 알려드림. 다운, 연지와 노래도 부름. 옛날 생각나신다는 분이 있어 서글펐다.

6/7 목, 6/8 금 4, 5일차

태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데 정전이 되어서 무서웠다. 이번 소록도 봉사하면서 즐렸다고 한다. 봉사하면서 노하우가 생겼는데 끝나서 아쉬웠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았다.

강: 박물관에 가서 그 분들이 그때 힘들게 사셨다는 것을 느꼈고, 4~5일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태훈: 오늘 마지막 봉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땐 그만 하고 싶었다. 막상 끝내려니 너무 아쉽다. 박물관에선 그 분들이 힘들게 사셨다는 걸 보니 안쓰러웠다. 병원의 역사를 알게 돼서 좋아요.

다운: 소록도의 기대를 했었고, 기대에 맞게 했었다. 안쓰럽고, 안타까웠다. 안 울려고 했는데 울어서 다시 울 것이다. 공원이나 박물관에서 아쉬운 게 많았다.

원: 마지막으로 하면서 첫날 보단 잘했지만, 잘했다. 할 일이 없었다는 게 힘들었지만 할머니들이랑 친해져서 좋았던 것 같다.

연우: 봉사하면서 배만 고팠다. 재미난 것도 많았지만 아쉬운 게 많았고, 간호사 분들도 일하시면서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튀는 것 같아 별로였다.

수진쌤: 병동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4박 5일이 짧았다. 내년에 한다면 2주는 해야 할 듯. 우리도 좀 더 오래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친해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음, 무빙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가져가도 좋을 듯.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본 듯하다. 뿌듯했다. 우리가 배울 수 없었던 역사를 알게 되었다. 내년 아이들에게 적극 추천!

한별: 적응이 된 것 같다. 끝나서 아쉽다. 길게 하는 건 힘들 것 같다.

봄: 슬픔, 박물관을 보고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했다. 녹동 문구점에 갔는데 초등학교 생각이 나서 좋았다.

수민: 이야기가 좀 될 쯤 끝나서 아쉬웠다.

정민: 아쉬웠다.

명주: 간호사 분들이 까칠 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 이번 봉사가 짧았던 것 같다.

수정: 짧았던 것 같다. 혼자 오기엔 힘들 듯하다. 봉사가 끝나면서 울컥했고, 아쉬웠다.

연지: 이야기를 못해서 아쉬웠다. 봉사했던 시간과 모든 것이 아쉬웠다.

후조쌤: 84년부터 봉사를 와서 힘들고 했었지만, 병동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수발



을 들고 했던 일들은 뜻 깊고, 우리의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와 닿았다. 소록도에 다시 온다 해도 이번 느낌을 잊지 못할 것이다.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곳을 잊지 못할 것이고 다시 오랜만에 봉사를 한 것이 좋았다. 모두에게 고맙고 기특했다. 무빙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나에겐 귀한 시간이었다.

정호쌤: 같이 한 친구들이 기특했다. 감사하고 어르신들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다음에 왔을 때 안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30년 뒤엔 소록도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본다. 소록도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다음 일정도 잘 할 것 같다.

우진: 봉사가 끝나서 행복하다. 봉사하는 동안 힘들었다. 이런 유형의 봉사는 나랑 안 맞는 듯하다.

우제: 4~5일이 길지 않고, 금방 간다고 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도 짧은 것 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루: 첫날엔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잘 되었다. 봉사가 벌써 끝난 게 신기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서 다신 안 올 것이다. 그래도 꽤 괜찮았다.

담: 병동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다른 병동에도 가보고 싶었지만 아쉬웠다. 다 좋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좋았다.



6/9 일 5일차

6/10 일 6일차

태운: 쉬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좋았다. 기상시간도 늦었고, 시간 여유가 많아 좋았다.

한별: 연애바위 가는 곳이 힘들었다.

태훈: 봉사 활동 후 하는 휴식 시간이 좋았고, 피곤함이 많이 풀린 것 같다.

재하: 힘들고 덥고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바다를 보고 뛰어 들어 갈 때 좋았어요.

담: 걸을 때 더웠지만 비를 맞고 좋았어요.

연우: 머리가 아프네요. 에어컨이 너무 세서 그래요.

다운: 청산도 일정을 저희가 짰고, 길도 모르고 헤맸지만, 무사히 올레길을 잘 걸었다. 근데 사실 걷기만 하고 힘들고, 밥만 하느라 피곤했다. 회도 잘 먹고, 재미있었다.

봄: 피곤함을 풀었고, 걷는 중 힘들었지만 피곤함을 풀어서 좋았다.

마루: 더워서 힘들었지만 쉬는 게 좋았다.

수민: 일정을 짜면서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았다. 휴식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수정: 그냥 그랬다. 별 생각이 안 들었다.

명주: 갈 때 머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쉬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정민: 쉬는 시간이 많아서 피곤함도 풀리고 좋았다.

연지: 생각보다 짧아서 당황했다. 밥하는 게 힘들었다.

수진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강: 걸으면서 힘들었지만, 도중에 카페에서 맛있는 걸 먹었다.

우진: 쉬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원: 방이 좁은 거 빼고 좋아요.

우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정호쌤: 큰 불만 없었지만 그저 그랬다. 관광객들에게 맞춰서 만든 것들이 별로였다. 사람들 기억에 없는 것들을 새로이 넣으려 하니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건드린 모습은 별로였다.



6/11 월 7일차

태운: 6코스를 걸었지만 주변 풍경이 덕산 같았다.

수진쌤: 목섬에서 산책하고 있는 도중에 커플과 마주치자 그분들이 도망치셨다. 돌담길이 예뻐다. 카페를 찾느라 오랫동안 헤매다가 카페를 다녀왔다. 갈 길이 없어서 무서웠다.

연지: 슬로우 길이 재미있었다. 전복 준비를 하는데 힘들었다.

봄: 그저 그러겠지 하고 범바위를 봤는데 모양이 똑같았다. 안개가 끼서 그런지 더 보기 좋았다.

명주: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서 힘들지 않았고, 올라가서 구경 잘 하다 왔다.

정민: 올라갈 때 안 힘들었고, 그냥 올라가고 나서 좋았다.

다운: 돌담마을에 가서 생각보다 돌담 같지도 않고, 어찌다 쌤들을 만났었다. 새우를 보려 했으나 아쉽지 않았다. 생각보다 친구들이 밥을 잘 먹어서 나도 나중에 밥을 잘 먹어 줄 것이다.

수민: 돌담마을에 갔지만 길을 헤맸던 것 같다. 생각보다 돌담마을이 작았다. 언덕에서 풍경을 봤는데 덕산의 풍경 같았다.

수정: 범바위가 길지 않아 좋았다. 밥을 늦게 먹어 기분이 안 좋았다. 그저 그랬다.

마루: 범바위가서 덥고 짹짹했다.

한별: 많이 걸었던 것 같지만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

정호쌤: 카페에 가니 좋았다. 풍경과 주위의 분들도 좋았다. 간 지역이 청산도의 첫 마을이었다고 했다. 임진왜란을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다. 정신도 되찾고 좋았다. 청산도의 슬로가 이제야 와 닿았다. 우리도 그런 걸 느끼길

강: 돌담마을을 가니 금방 지나왔다. 새우를 보지 못해 아쉬웠다. 포토 존이 되게 예쁘지 않았다. 학교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우진: 그냥 한 거 없이 좋았다.

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풀밭을 걸으면서 뱀이 나올까봐 두려웠다.

연우: 섬 가운데서 건다보니 바다가 나와서 좋았다.

우제: 코스를 걸었는데 쌤이 바보였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었다. 추천하지 않는 코스다.

담: 버스를 탔는데 추가요금을 냈지만 너무 빨리 내린 것 같았다. 100m에 100원 인가 했다. 길은 괜찮았다. 건다보니 바다가 나왔다. 그리고 어떤 분을 도와드리고 왔다. 그저 그랬다. 마지막엔 히치를 해서 숙소까지 왔다.

재하: 할 거하고 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다. 허락도 받고 농구를 잘했었다.

태훈: 범바위까지 잘 가서 좋았다. 올라갈 땐 덥고, 짹짹했으나 잘 구경했다. 버스 놓치지 않기 위해 빨리 내려 왔으나 못탑. 그러나 택시를 타고 개 이득.

6/12 화 8일차

태운: 청산도 팀의 계획에 쉬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모든 밥이 맛있었다. 여행지에 가서는 쉬고만 있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다.

마루: 청산도 팀 일정이 쉬는 게 많아서 좋았다.

우진: 일정 계획이 잘 성공 되어서 좋다. 밥 많이 먹을 것이다.

수민: 애들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힘들었다. 다음 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았다.

연지: 오늘 완도타워 가는 길이 힘들었다. 슬로 길 코스가 짧았다. 그래서 좋았다.

담: 완도가 섬 같지가 않아서 신기했다. 계단이 4~5개가 있어서 힘들었다. 다음 팀에게 안전하게 넘겨주는 것 같다.

다운: 짧았지만 여행을 계획하고, 갔다는 게 좋았다. 일정이 의미 있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

원: 밥이 좀,.. 아니었지만 쉬는 건 좋았지만, 뽕셀 땀 힘들었다.

정민: 소록도에서의 피로를 풀 수 있어서 좋았다. 휴식이 좋았고 잘 쉬었다.

봄: 쉬는 일정이 좋았다. 슬로길 코스가 아쉬웠다. 이번 강의가 멋있었다. 누군가 무빙으로 와도 좋을 듯하다.

명주: 쉬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타워 오르는데 힘들었지만 에어컨이 좋았다.

수정: 청산도에서 덜 실 걸 했다. 후회가 된다.

정호쌤: 계획이 실천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물놀이를 못한 것 빼고는 계획을 실천했다. 다음 팀도 잘 하길 바란다. 맡은 일을 해준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한별: 청산도에서 잘 쉬었다. 활동이 적당해서 좋았다.

재하: 여유로운 일정이었다. 바다에서 못 논게 아쉬웠다. 강진 바닷가에서 놀고 싶어요.

강: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일정이었다.

연우: 소록도와 청산도도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좀 그랬다. 평소에 잘 먹지 않던 회도 먹었고, 오늘 더웠지만 잘 놀았고, 바람이 불어 시원했다.

우재: 청산도에서 밥을 잘 먹었다. 처음엔 양이 부족 한 듯 했으나 되게 잘 먹었다. 이번 활동은 다 좋았던 것 같다. 쉬고, 또 쉬고 해서 좋고 숙소도 좋다.

태훈: 저는 이번에 청산도 팀이 짠 일정 진행하면서 잘 쉬었지만, 우리 조 할 생각하니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요.

수짐쌤: 숙소가 너무 열악했다. 하지만 청산도는 예뻐다. 밥이 너무 설익었다. 청산도의 씨유는 신의 한 수였다!



6/13 수 9일차

태훈: 오늘부터 우리 조인데 쉽지 않은 일 같다 청산도 팀 멋있다.

봄: 청산도 팀이 대단하고 해보니까 힘들다 백련사가 생각보다 좋았다.

명주: 백련사 까지 잘 찾아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

수정: 버스 시간이 걱정되고 절이 생각보다 좋았다.

정민: 버스시간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잘 와서 다행이다.

마루: 우리 조에서 내가 한 게 별로 없어서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르겠지만 절 숙소가 생각보다 좋았다.



6/14 목 10일차

연우: 힘든 날이었다. 6일 남은 무빙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앉아서 바다를 보니 노란색이다. 생각을 많이 해봤다. 난 커서 뭐할까 뭐가 하고 싶을까. 잘 모르겠다. 근데 기타를 치고 싶고 무대가 좋다. 무빙을 하면서 남은 시간엔 줄곧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뭘까 생각해 본적 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건 기타, 이어폰 끼고 노래들을 수 있는 지금 같은 이런 시간을 원했던 것 같다. 물론 영순위에는 무빙이 얼른 끝나서 학교에 입교하고 싶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들도 보고 싶다. 성민이도. 이 무빙이 끝나면 난 크게 성장해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무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치만 매일이 같은 학교보단 일 년에 한번쯤은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나에게 16박17일은 너무 길다. 나는 나름 하고 싶은 게 확고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타 치는 거 말고 다른 곳에 시간을 쓰는걸 아깝다고 생각했다. 여행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였다.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막상 가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힐링은 커녕 지치기만 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지치는 부분에서 내가 배울게 좀 많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4학년 무빙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여행도 많이 다녀야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냥 한적한 게 너무 좋다. 약간 분위기에 취한 것 같기도 하다. 오늘 밤을 자고 일어나면 5일남은 무빙이고 내일이 지나면 4일 남은 무빙이니. 그냥 즐기기로 했다. 해가 산을 넘어가고 있다. 즐리다.

한별: 오늘 바지락 캐기를 했는데 바지락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태운: 갯벌에 맨발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서 아쉬웠다.

재하: 오늘 바지락 캔 걸 먹으니 맛있었다. 내일 물놀이가 기대된다.

우제: 바지락 캔 때 더워서 힘들었고, 내일 물놀이로 시원하게 씻어 버리고 싶다.

우진: 오늘 날이 좋아서 날이 너무 더워서 모든 일정이 재미있었다.

마루: 덥고 짹짹했지만 바지락 캐기가 재미있었다.

강: 더웠지만 바지락 캐기 재미있었고 바지락 맛있었다.

태훈: 날씨가 완전 찡찡하고 더웠다. 그렇게 더웠는데 바지락 캐는 건 재미있었다. 내일 물놀이를 빨리 하고 싶다.

원: 오늘 많이 덥긴 했다. 그러나 바지락이 맛있어서 좋았다.

담: 더웠지만 즐거웠다^^

연지: 오늘은 5시에 일어났지만 졸리지 않았다. 그리고 백련사에서 시끄럽게 했는데 혼내러 왔을 때 애들이 다 자는 척 해서 나만 혼났다. 그리고 여기 와서 갯벌 갔는데 생각보다 장화를 신어서 그런지 좋았다. 이상한 생물들이 발에 침투하지 않아서

봄: 백련사 숙소가 너무 좋았다. 너무 잘 잤다 잘 쉬었다. 바지락 캐기 할 때 바지락을 나 혼자 한바가지 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어서 아쉬웠다. 하지만 바지락 라면을 먹을 때 너무 잘 끓이고 너무 맛있어서 행복했다. 오늘은 운동을 해야겠다. 조끼리 밥 먹을 때 애들이 연애 이야기만 해서 내가 낄 자리가 없었다. 모짜렐라 치즈인더버거 너무 맛있었다.

다은: 템플스테이를 상상한 것보다 분위기도 편안하고 절스러운 느낌이 좀 없어서 다행이면서도 좀 아쉬웠다. 이동을 하는데 버스가 힘들었다. 바지락 캐기가 살짝 귀찮았는데 하니까 나름 재미있었고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었는데 이장님이 오셔서 다행이었고 내일 빨리 바다를 가고 싶다.

명주: 아아 생각보다 절 숙소가 좋았다. 생각보다 바지락이 너무 없었다.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면 좋겠다.

수민: 어제 절 산책 했을 때부터 감기가 오려나보다 했는데 오늘 갯벌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바지락을 캐서 몰랐는데 감기가 제대로 온 듯 템플스테이는 외할머니가 불교라서 별로 낯설지 않았고 내가 생각한 절이랑 많이 달랐다. 발우공양 같은 것도 안 해서 편하면서도 신기했고 오늘 신전떡볶이랑 닭 강정을 먹었는데 맛있었다.

정민: 템플스테이가 생각보다 안 빠세고 널널해서 좋았고 발우공양을 못해서 좀 아쉽다. 바지락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

정호쌤: 일단 쪼개져 있는 일정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해는 하지만 왜 그럴까 미스터리. 이 동네를 기억하기엔 너무 짧고 단편적이라. 템플스테이 처음인데 좋았다. 형식에 갇힌 일정이 아니라 좋았다. 다산초당을 아침에 갔다 왔는데 다 같이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다시 한 번 와봐야겠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버스시간을 걱정하는 강진팀을 보고 재미있어 하고 있다.

수정: 백련사 좋았는데 밤에 옆방이 시끄러웠고 밖에 나와서 별자리 이야기하고 너무 시끄러웠다. 버스시간이 언젠지 생각이 안 나서 넘 조마조마 했다. 점심은 너무 맛있었다. 빠리바게트 팔빙수 꿀맛 하저마을 이장님이랑 아주머니가 너무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6/15 금 11일차

태운: 바다에 물놀이 하러 갔는데 갯벌 바닥의 느낌이 나서 좋았다. 농구를 해서 좋았다.

정호쌤: 원이네 부모님이 보내주신 장조림 맛있었다. 식사 메뉴가 창의적이지 못해 아쉽다. 되게 널널한 일정이라 좋았다.



우제: 바다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농구도 잘 했다. 근데 배가 아파요.

담: 바다에 들어갔는데 제주도의 느낌 하고는 달랐다. 중간에 발이 빠졌다.

마루: 해수욕을 할 줄 알았는데 뽕에서 노니까 느낌이 이상했다. 내가 한 밥을 잘 먹어 줘서 좋았다.

한별: 갯벌에서 걸을 때 깊숙이 빠져서 무서웠어요.

원: 녹차 떡갈비 별로였어요.

수민: 바다에 놀 때 이봄을 묻어서 좋았다. 녹차 떡갈비가 맛이 없었다.

명주: 생각보다 물이 없어서 내일에 물 많을 때 잘 놀고 싶다.

수정: 그냥 좋았어요.

연지: 갯벌이 별로였다. 해파리가 있어서 무서웠다.

강: 갯벌을 싫어하는데 갯벌이라 아쉬웠다. 축구를 해서 좋았다.

다은: 바다를 가서 좋았는데 해파리도 많고, 물이 얇아서 별로였다. 갯벌에 빠져서 죽을 뻔 했는데 태훈이가 살려줬다.

수진쌤: 하저마을 사장님이 남자아이들을 안 좋아하신다. 금산간디를 만나서 신기했다. 점심이 아쉬웠다. 봄이를 묻는데 재미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맛있었다.

정민: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서 아쉬웠다. 봄이를 묻어서 좋았다.

봄: 특미관이 맛있었다. 바다에 담가져서 힘들었지만 겨우 살았다. 수진쌤도 날 묻었는데 쥐가 나서 힘들었다. 난 죽을 뻔 했다. 저녁이 맛있었다.

재하: 특미관이 맛있었다. 떡갈비를 많이 먹었다. 바다 보다는 신발 찾기에 애를 썼다. 농구도 하고 좋았다.

우진: 마루와 함께 생태계를 파괴했다. 다 죽였다.

연우: 바다에서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 오랜만에 농구를 해서 좋았다.

태훈: 신발을 잃어버려서 아쉬웠던 하루였어요.

6/16 토 12일차

태윤: 재미있었어요. 물놀이와 농구를 하면서 잘 놀았어요.

재하: 바다에서 잘 놀았던 것 같고, 농구도 해서 좋았어요.

우제: 갯벌이 아닌 바다라서 좋았어요.

한별: 목욕탕이 좋았어요.

수민: 오랜만에 씻어서 좋았어요.

강: 뽕송하게 좋았으나 도시락을 준비 못한 바람에 밥을 먹지 못해 아쉽다.

정민: 바다에서 좋았고, 목욕탕도 좋았어요.

연지: 바다에서 놀고 있는 중에 해파리가 많아서 별로였고, 목욕탕에서 물놀이를 했다.

봄: 목욕탕을 오랜만에 가서 좋았고, 수진쌤을 문었다.

우진: 바다에 있는 해파리를 마루와 함께 학살했어요.

수진쌤: 담가져서 좋았다. 녹차탕에서 몸무게를 잰데 살이 안 썬서 좋았다.

명주: 수진쌤 문는 게 좋았고, 목욕탕이 좋았다.

수정: 바다에서 사진 찍는 게 좋았지만 저녁에 컨디션이 안 좋았다.

원: 농구를 잘 했다. 해파리의 느낌은 언제나 개 같다.

담: 해파리 재미있었다. 해파리의 느낌도 좋다.

연우: 이틀 연속 바다에 가서 좋았다.

마루: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했다.

다운: 호텔스컴바인

태훈: 바다에서 노는 게 재미있었고, 날씨는 더웠지만 물놀이 후에 목욕탕에 가서 좋았다.

정호쌤: 잘했구요....





6/17 일 13일차

태운: 빔을 잃어버려서 기분이 좋지 않다.

원: 빔도 잃어버렸지만 신발도 잃어버렸다.

담: 낙안읍성에서 잘 놀아서 좋았다. 꼬막정식이 맛있었다.

정호쌤: 잘 도착했고, 일정이 잘 짜졌다. 낙안읍성에서 술래잡기 재미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제대로 안 짜고 그래서 화가 날 뻔 했다.

수진: 성이 다른 성에 비해서 아쉬웠다. 집집마다 체험료가 필요한 거라서 아쉬웠다. 지들끼리 잘 놀고 하는 모습이 좋았다. 꼬막 재미있었다.

한별: 오랜만에 기차타서 좋았다.

수민: 꼬막을 못 먹는데 먹으러 가서 맨밥만 먹었다. 그리고 오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다.

정민: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고, 성에서 잘 놀았다.

연지: 새끼줄 꼬기 재미졌다. 줄넘기로 꼬마야 하는데도 재미있었다.

수정: 조 일정이 끝나서 좋았다. 그리고 배가 너무 많이 불렀다.

명주: 줄넘기 재미있었다.

봄: 성에서 한 게 재미있었다. 꼬막 맛있었다.

우제: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원래 일정보다 변경된 게 많았다. 경도 중에 여유가 많았다. 꼬막이 생각보다 맛있었다.

재하: 잠을 현란하게 잤다. 그래서 오늘 눈 풀린 채 다녔다. 내일은 몸 상태가 좋았으면 한다.

다운: 마지막 팀 순서라 그런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성에서 나름 잘 놀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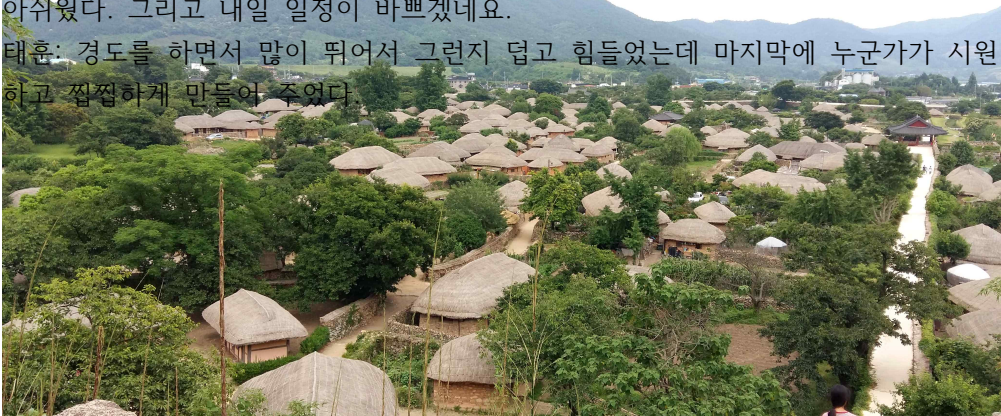
마루: 이동을 많이 하면서 잠을 잘 잤다.

강: 낙안읍성이 생각보다 익숙했고, 꼬막을 안 좋아해서 별로였다.

우진: 토를 했는데 그 이유가 꼬막을 먹고 몸에 안 맞아서 힘들다.

연우: 성에서 재미있었다. 다닌 길이 대부분 민박집이었다. 안 잡힐 수 있었는데 아쉬웠다. 그리고 내일 일정이 바쁘겠네요.

태훈: 경도를 하면서 많이 뛰어서 그런지 덥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누군가가 시원하고 짹짹하게 만들어 주었다



6/18 월 14일차

태운: 결국 빔을 찾지 못해서 아쉬웠다.

강: 길을 잃었지만 다행이 애들을 만나서 살았다.

수진쌤: 너무 이동만 해서 아쉬웠다. 이리다가 집에 갈 것 같다.

한별: 조에서 한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뭐라도 열심히 하겠다.

담: 도서관가서 좋았던 점이 많았다. 카레를 만드는데 재미있고 맛있다.

연우: 준비를 하면서 미흡한 점이 많았고, 아침에 만든 샌드위치 맛있었다.

우진: 배고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먹었다.

마루: 보성여관이 알고 보니 휴관이라서 이걸 좋아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몰랐고, 별로였다.

다운: 집가고 싶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가서 좋았다.

수정: 오늘 뭐 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도서관은 좋았다.

명주: 보성여관 아쉬웠고, 도서관에서 놀라움을 느꼈고, 놀이터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연지: 분수대에서 잠깐 놀아서 좋았다.

정민: 도서관을 가서 좋았고, 도서관을 지으신 분과 기숙사를 지으신 분이 같은 분이어서 그걸 듣고 놀랐다.

수민: 밥을 제대로 못 먹었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힘들었고, 도서관에서 재미있었다.

봄: 보성여관을 못가서 아쉬웠다. 도서관에서 예전에 봤던 책을 읽었다. 재미있었다.

정호: 일정을 제대로 짜지 않아서 오늘 하루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생긴 일정 나에겐 별로였다. 시간이 있었지만 미리 계획을 정리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

재하: 숙소가 좋아서 오늘과 내일은 편하게 잘 수 있으리라 한다.

우제: 일정을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아 미안했다. 숙소에서 쉬니까 괜찮아졌다.

원: 도서관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잡고 읽었는데 정신차려보니 시간이 지나가 있었다.

태훈: 이동하면서 쌓인 피로를 숙소에서 푼 것 같아 좋았다.



6/19 화 15일차(마지막 하루나누기)



태윤: 어제보단 오늘이 좋았다. 뭔가 부족함. 내일에 집 가서 좋다.

한별: 더웠다. 좋았던 것 같아요.

우진: 마지막 날이라서 좋았어요.

강: 유익한 상점에서 먹은 음료가 맛있었고, 내일 집 간다.

연우: 마지막 날이라 좋았다.

원: 국가정원에서 해설 해주시는 분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분위기가 싸했다.

수민: 오늘 무빙 중 가장 바빴던 것 같다. 내일 집 가서 좋다.

수정: 컨디션이 안 좋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봄: 하고 싶었던 걸해서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명주: 창고에서의 점심이 맛있었고, 일정이 많아서 좋았다.

연지: 국가정원에서 사진 찍는 게 좋았고, 창고에서 밥도 잘 먹었다. 상점에서도 좋았어요.

다운: 정원에서 너무 습했고, 창고나 상점에선 볼거리가 많았고, 무빙 마지막이라서 좋다.

담: 일정이 부드러워 편했다. 사진 찍는 게 좋았다. 창고나 상점에서 여러 얘기도 듣고 해서 좋았다.

마루: 무빙의 마지막이라서 좋았어요.

재하: 청춘창고가 멋있었다. 가게나 분위기도 좋았어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좋았어요.

우제: 일정이 잘 넘어가서 좋았고, 집 가서 산뜻하다.

정호쌤: 일정에 불평 없이 다녀서 신기하다. 상점에서 강의 해주신 분이 고마웠다. 청춘창고처럼 청년들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으로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게 요즘 흐름인데,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

태훈: 일정이 잘 진행되어 좋았다. 청춘창고에서 분위기 있게 밥도 잘 먹었고, 상점에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좋았고, 무빙 수고하셨습니다.